

고령화 시대의 성담론

- 노인의 성에 대한 노인복지학적 이해와 접근에 대한 기독교 윤리적 평가 -

오성현 (서울신학대학교 교수)

I. 들어가는 말

II. 노인의 성에 대한 재발견

1. 노인의 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학습
2. 노인의 성생활에 대한 실증적 연구

III. 노인의 성에 대한 이해

1. 노인의 성에 대한 생리적 접근
2. 노인의 성에 대한 심리적 접근
3. 노인의 성에 대한 사회적 접근

IV. 노인의 복지와 성

1. 노인 삶의 향상과 성 생활
2. 노인의 성생활의 활성화 방안

V. 노인복지학적 노인의 성담론에 대한 윤리적 고찰

1. 자유주의 성윤리로 경도된 노인복지학적 노인의 성담론
2. 자유주의적 성윤리에 대한 기독교 윤리적 비판

VI. 노년의 성담론에 대한 기독교 윤리적 평가와 제언

• ABSTRACT •

The Discourse of the Sexuality of the Elderly: A Christian Ethical Evaluation of the Approaches of the Elderly Welfare

Oh, Sung-Hyun

The current discourse of the sexuality of the elderly people in the aging Korean society is led by the study of the welfare of the aged. So this paper analysed the results from the study of the welfare of the aged on the understanding of the sexuality of the elderly, in order to introduce the main concerns of the current discourse of the sexuality of the elderly people. The social prejudice about the sexuality of the elderly, 'the old man has neither sexual desire nor sexual ability' is being overcome by the empirical studies of the sexuality of the aged. The medical, psychological and social approaches to the sexuality of the elderly have led to the research result that the sexual life of the old people is possible, useful and even necessary for the health and welfare of the aged. So the social help is requested for the improvement of the sexual life of the elderly and for positive cognition of the sexuality of the aged. However this paper has showed that the approach of the welfare of the aged has inclined to the liberal understanding of sex. Just because the elderly people are old, the fact that they are sexual beings is not to be denied. The sexuality of the elderly should be recognized. But the old people should not be oversexualized. Not only direct sexual behaviors but also various indirect sexual expressions and alternatives are possible, useful and meaningful for the old life of human beings.

Key words: sexuality of the elderly, welfare of the elderly, sexual life of the aged, sexual ethics, Christian ethics

I. 들어가는 말

의학 기술의 발달과 생활수준의 향상에 힘입어 인간의 평균수명은 증가하고 있다. 한 사회를 구성하는 인구의 평균수명이 증가하면서 사회에서 고령층의 인구비율이 높아지기 시작했다. 이런 인구 고령화의 현상은 세계의 여타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인 사회를 지칭하는 고령화 사회에 우리나라도 이미 2000년에 진입했으며, 2013년 현재는 12.2%를 기록하고 있다.¹⁾ 이런 추세라면 우리나라가 2018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14% 이상인 고령사회로, 2026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20% 이상인 초고령사회로 접어들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장수는 인간에게 축복으로 간주된다. 하지만 단지 오래 산다는 것만으로 복이라고 할 수는 없다. 양적으로 오래 살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좋은 삶을 영위할 것을 누구나 원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고령화 사회 내지 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의 삶의 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부각되었다.

2013년 10월 2일, 유엔이 정한 노인의 날을 맞이하여 전 세계의 노인의 삶을 비교·분석한 보고서 「글로벌 에이지워치」(Global Agewatch)가 발표되었다.²⁾ 조사된 91개국 중에서 우리나라 노인의 삶의 지수는 67위를 차지했는데, 특히 소득보장의 측면에서는 꼴찌에서 두 번째인 90위를 차지했다. 한국의 노인들이 전 세계의 노인들의 삶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더 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그런데 신체와 건강 항목에서는 8위를 차지하여, 다른 모든 항목에 대한 평가보다 높았다. 이것은 한국의 노인들이 신체적으로 건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두 항목

1) 통계청, 「2013 고령자 통계」, 2013.9.30.

2) <http://www.helpage.org/global-agewatch/>

에 대한 평가를 종합한다면, 고령화 사회에 이미 진입했으며, 곧 고령사회에 접어들 한국의 노인들이 경제적으로 빈곤하지만 신체적으로는 건강하다는 뜻이다. 현재 난항을 겪고 있는 기초연금제도 등의 사회복지정책의 강화를 통해서 우리나라 노인들의 경제적 수입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시급한 과제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아울러 신체의 건강함에서 노인들이 신체적으로 할 수 있는 생활과 활동, 욕구에 대한 기대가 매우 크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³⁾ 노인들이 하고 싶어 하고, 할 수 있는 여러 신체적 활동들 중에는 성적인 활동도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이런 점에서 본 논문은 고령화 시대에 들어선 한국사회에서 노인들의 성에 대한 담론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기독교 윤리적 평가를 시도하고자 한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 노인의 성에 대한 담론을 주도하는 것은 사회복지 분야다. 이것은 노인의 성을 연구 대상으로 삼은 학술적 연구결과물들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분야가 사회복지분야라는 점에서 알 수 있다. 노인의 성에 대한 담론은 노인들이 스스로 노인의 성에 대해서 말하는 것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었다. 노인의 복지와 관련된 사회복지체제들이 형성되고 시행되면서, 노인관련 사회복지사나, 노인복지시설 종사자들이 노인의 성에 대한 문제들에 봉착하면서, 노인의 성에 대한 이해와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들이 시작되면서, 노인의 성에 대한 담론들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이런 점에서 본 논문은 고령화 시대의 한국사회에서 이루어지는 노인의 성에 대한 담론을 소개하고, 분석하기 위해서 사회복지학적 관점에서, 좀 더 좁혀서 말하자면 노인복지학적 관점(일부 간호학적 연구를

3) 고령화사회에 대한 준비에서 재무 분야 못지않게 비재무 분야, 즉 직업, 사회활동, 인간관계 등의 분야도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참고 이상훈, 「공공신학적 관점에서 본 교회개혁과 고령화사회」, 한국기독교사회윤리학회, 『기독교사회윤리』, 2013, 제 25집, 55.

포함하여)에서 이루어진 노인의 성담론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았다. 그래서 본 논문은 먼저 노인복지적 관점에서 논의되고 연구되었던 노인의 성에 대한 이해와 대응책들을 소개함으로써, 현대 한국 사회에서 진행되는 노인의 성담론에 대한 주요 관심사들을 소개할 것이다. 이어서 그런 성담론에 주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성윤리의 유형을 규명한 후에, 기독교 성윤리의 관점에서 그 내용들을 비판적으로 조명할 것이다.

II. 노인의 성에 대한 재발견

1. 노인의 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학습

한국 사회에서 성 담론을 펼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이다. 성담론이 사람들이 숨기고 싶어 하는 치부를 드러내는 것으로 흔히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더구나 한국 사회에서 노인의 성에 대해서 거론한다는 것은 매우 불손한 일처럼 보이기도 한다.⁴⁾ 전통적 유교 사상에 익숙한 한국 사회에서 노인이란, 이기적이지 않고 희생적인 무욕의 존재, 혹은 세속적 쾌락에 초연한 도인이나 신선과 같은 존재로 이해된다. 따라서 노인을 성과는 무관한 존재, 무성적 존재, 탈성적 존재로 여기는 사회적 편견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생식시기를 지난 노인의 성 활동은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성에 초연해야 존경받는다는 사회적 믿음은 노인에게 성을 체면문제로 치환시켰다.”⁵⁾

노인의 성에 대한 잘못된 정보와 편견의 만연함은 서구사회에서도 마

4) 유성호 외 3인, 『노인복지론』(서울: 아시아미디어리서치, 2002), 293f.

5) 김혜선, 「노년기 유배우자의 성생활 인식, 성생활 실태와 부부 관계와의 상관성 연구」, 한국노인복지학회, 『노인복지연구』, 통권 38호, 2007, 314. 참고. 이영균, 성경원, 「노년기 성교육에 관한 실태분석」, 한국노인복지학회, 『노인복지연구』, 통권 28, 2005, 295-316.

찬가지였다. 노인의 성에 대한 사회적 편견은 합리적 근거가 없는 “신화”라고 규정하면서, 그런 신화로부터 벗어날 것을 서구사회도 촉구 받고 있는데, 그 내용의 일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나이가 들면 성적인 욕구가 줄어들고 60세에서 66세 사이에 완전히 소진된다. 둘째, 성교를 위한 육체적인 능력이 나이와 함께 퇴화한다. 셋째, 성교는 육체적인 조건과 생산의 문제이며, 따라서 젊은 사람에게 보다 적합하다. 넷째, 성교는 노인생활시설에서는 중단된다.”⁶⁾ 다시 말해서, 노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노인에게는 성욕구가 소진되었고, 그 욕구를 충족시킬 성행위의 능력도 퇴화되었으며, 따라서 성교는 젊은이들의 특권이며 전유물이라는 ‘신화’가 사회 안에서 받아들여져 왔다는 것이다.

이처럼 노인을 성과는 무관한 존재로 여기는 편견은 오랜 세월 동안의 다양한 학습과정을 통해서 노인의 자의식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리하여 노인 스스로 자신의 성적 욕구와 성행위를 억압하면서 성적 능력을 쇠퇴시켰으며, 자신의 성적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상실하면서 사회적 편견을 더욱 고착화시키는 악순환을 가져오기도 한다. 그 결과 노인들은 자신들의 성의 문제를 표출함에 있어서 소극적이게 되며, 심지어는 부부간의 성을 터놓고 대화하기에도 어려워하는 경향을 보인다.⁷⁾

6) 김기영, 『황혼의 남과 여, 사랑하고 또 사랑하라』(서울: 상상나무, 2009), 73. 미국의 심리학자 블록도 이와 유사하게 50세 이상의 성생활에 관한 12가지 잘못된 신화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몇 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나이가 들에 따라 성생활의 질은 남성, 여성 모두에서 저하된다. 여성이 충분히 질윤활이 안 되거나 남성이 즉시 발기되지 않는다면, 흥분이 안 되는 것이다. 발기 문제는 불가피한 것이며 의학적 개입 없이는 치유가 불가능하다. 여성의 성적 욕망은 폐경 이후 극적으로 감소한다. …… 삽입성교만이 성교의 영역에 포함된다. 다른 것은 ‘섹스’라고 할 수 없다.” Block, J. D.(1999), *Sex over 50* (New Jersey: Prentice Hall Press, 1999): 이호선, 『노인과 노화』(서울: 시그마프레스, 2010), 129f. 재인용.

7) 참고. 김혜선, 「노년기 유배우자의 성생활 인식, 성생활 실태와 부부 관계와의 상관성 연구」, 314; 이승재, 이연숙, 김양이, 「노인의 성욕구 수준과 성에 대한 태도」, 한국임상사회사업학회, 『임상사회사업연구』, 2013, Vol. 10, No. 1, 2.

이런 사회적 편견의 심층부에는 성에 대한 특정한 이해가 놓여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성은 오로지 생식을 위한 것이라는 성에 대한 편협한 이해가 깔려있다는 것이다. 서구에서는 중세 기독교의 금욕사상의 영향 아래, “성행위는 오로지 자녀의 출산을 위해서만 필요한 것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임신이 불가능한 노인들의 성생활(특히 폐경 이후의 여성)은 매우 부정적이고 자연에 대한 죄악으로 간주되었다.”⁸⁾ 또한 전통적인 유교사상에 뿌리를 둔 한국적 ‘신화’에서도, 성은 가문의 대를 이을 종족보존의 기능만을 위한 것이기에,⁹⁾ 특히 여성의 경우에 생식능력이 종료되면 성적 활동도 종결되어야 한다는 심리적 경향이 많이 나타나며 따라서 아내가 성관계를 거부하는 현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¹⁰⁾ 이와 같이, 성행위는 생식활동만을 위한 것이라는 편협한 성 이해를 바탕으로 형성된, 노인의 성에 대한 사회적 편견은 오랫동안 서구 사회나 우리 사회를 지배해왔다.

2. 노인의 성생활에 대한 실증적 연구

노인을 무성적 존재, 탈성적 존재로 보는 일반적 편견을 깨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최근에 활발하게 진행된 노인들의 성생활 실태에 대한 실증적, 경험적 연구의 결과였다. 노인의 성생활 실태에 대한 경험적 연구는 먼저 미국에서 시작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다.

미국의 노인들의 성생활 실태를 조사한 킨제이의 연구에 따르면¹¹⁾, 연령이 증가해도 많은 남성들이 성생활을 유지하고 있으며, 70세에도 70% 정도가 성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한다.¹²⁾ 미국에서 1991년

8) 유성호 외 3인, 『노인복지론』, 295.

9) 이승재, 이연숙, 김양이, 앞의 글, 2; 왕행남, 「노년기 성 실태에 관한 연구: 전주시 거주노인을 중심으로」(한일장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2.

10) 이승재, 이연숙, 김양이, 앞의 글, 7.

11) 킨제이의 연구에 대해서는 각주 100을 참조하라.

에 60세 이상의 유배우자 노인 807명을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1개월에 1회 이상 성생활을 한 노인의 비율이 52.4%였으며, 1주에 1~2회가 43.8%, 1주에 2회 이상이 13%였다고 한다.¹³⁾ 최근에 이루어진 영국이나 스웨덴의 노인들의 성생활 실태에 대한 조사에서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성 활동의 빈도가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많은 노인들이 여전히 성적인 활동을 유지하고 있으며, 성적인 반응에는 나이의 제한이 없었다고 밝히고 있다.¹⁴⁾

또한 일본에서 30대부터 70대 후반까지의 남성 8천여 명, 여성 3천여 명의 성생활 실태를 조사한 연구에 의하면, 성교 빈도는 나이가 들면서 줄어들지만 계속됨을 확인하였는데, 60대 전반은 약 60%, 후반은 약 50%, 70대 전반은 약 40%, 후반도 약 25%가 1개월에 1~2회의 성교 빈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고되고 있다.¹⁵⁾

우리나라에서도 1990년대부터 현재까지 노인들의 성생활 실태에 관한 다각적인 조사들이 이루어졌다.¹⁶⁾ 성생활의 실태에 관한 조사 결과가 다양한 편차를 보이고는 있지만, 대략적으로는 60세 이상의 유배우자 노인들 중 약 55~60%가 월 1회 이상의 성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¹⁷⁾ 노인 전체의 평균과 달리, 남성 노인과 여성 노인이 성생활 빈도

12) 나임순, 「고령화 사회의 노인 성문제와 대안에 관한 연구」, 한국임상사회사업학회, 『임상사회사업연구』, 2005, Vol. 2, No. 1. 127.

13) 유성호, 강지현, 홍미령, 『노년의 사랑과 성』(서울: 미래를 위하여, 2003), 32.

14) Benbow, Susan Mary & Beeston, Derek, Sexuality, aging, and dementia, *International Psychogeriatrics*, 2012, 24:7, 1026f.

15) 小林 照幸, 『熟年性革命報告』, 송현아 역, 『노년의 성혁명』(서울: 이지북, 2001), 86.

16) 참고. 심창교, 「노인 성 연구의 동향」, 한국임상사회사업학회, 『임상사회사업연구』, 2005, Vol. 2, No. 1. 148이하.

17) 2002년, 천안, 아산, 공주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노인 200명에 대한 조사에서, 월 1회 이상의 성생활을 하고 있는 응답자는 54%, 6개월 동안 1회 이상의 성생활을 하고 있는 응답자는 63%였다고 보고되고 있다(유성호 외 3인, 앞의 책, 30f.). 2013년에 전주 시 여가복지시설 이용 노인 191명(평균 연령 71.9세)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성행위

에서 큰 차이를 보였는데, 남성 노인은 월 1회 성생활 비율이 71%였지만, 여성 노인은 1년에 1회의 성생활 비율을 보이고 있다.¹⁸⁾ 한 다국적 제약 회사의 후원으로 이루어진 노인의 성관심도에 대한 조사에서, 60세 이상 노인의 76%가 성생활이 중요하다고 응답함으로써, 성에 대한 노인층의 적극적 관심이 보고되고 있다.¹⁹⁾

노인들의 성생활 실태에 관한 실증적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노화에 따라 성 활동의 빈도가 감소하지만, 반드시 그러한 것만은 아니었으며, 성 활동의 종식은 오히려 연령보다는 질병과 체력 등의 건강상태나, 사회적 환경과 주변인의 태도 등에 의해서 더 큰 영향을 받는다고 분석되고 있다.²⁰⁾ 그런 점에서 성생활은 연령과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²¹⁾ 이런 실증적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면서 노인의 성생활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편견이 해소되기 시작했으며, 아울러서 노인의 성생활에 대한 더욱 적극적이고 세부적인 연구와 논의가 새롭게 전개되고 있다.

를 전혀 하지 않는다는 응답자는 9%였으며, 월 1회 이상의 성행위 빈도 응답자가 60%였다고 보고되고 있다(이승재, 이연숙, 김양이, 앞의 글, 12). 청주시와 근교의 노인 184명에 대한 조사에서는, 56%의 응답자가 성생활을 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반면에 실증조사에서 성생활의 빈도가 상당히 낮게 나오는 경우도 관찰된다. 동해시와 삼척시의 65세 이상 80세 미만의 유배우자 노인 86명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는, 월 1회 이상의 성생활의 빈도를 가진 응답자는 약 35%였으며, 전혀 성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응답자도 46.5%가 되었다(김혜선, 「노년기 유배우자의 성생활 인식, 성생활 실태와 부부 관계와의 상관성 연구」, 324.). 이 같은 편차는 경제적 상태, 건강 상태, 사회문화적 환경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18) 김혜선, 「노년기 유배우자의 성생활 인식, 성생활 실태와 부부 관계와의 상관성 연구」, 315. 남성 노인과 여성 노인의 성생활 빈도 차이에 대해서는 후에 자세히 논할 것이다. 노인 인구 구성 비율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훨씬 높다는 점과, 남성 노인보다는 여성 노인이 대체로 성생활에 대해서 소극적이라는 점은 미리 염두에 둘만하다.

19) 나임순, 「고령화 사회의 노인 성문제와 대안에 관한 연구」, 128.

20) 오진주, 「노인의 성생활 경험에 대한 서술적 연구」, 한국보건간호학회, 『한국보건간호학회지』, 1998, Vol. 12, No. 2, 238.

21) 유성호 외 3인, 『노인복지론』, 30.

III. 노인의 성에 대한 이해

1. 노인의 성에 대한 생리적 접근

노인의 성에 대한 연구는 사회복지학, 노인복지학의 차원에 앞서서, 의학 및 간호학의 차원에서 먼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노화가 생리적, 생물학적 차원에서 성기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결과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노화에 의해서 인간의 생리적인 성기능에 변화가 초래된다. 남성의 경우에는 노화와 더불어서 남성 호르몬 분비 감소 현상이 나타난다. 남성은 40세부터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분비가 감소하면서, 일종의 갱년기증후군을 경험한다. 무기력, 체중감소, 식욕부진 등과 더불어서 남성의 성기능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지는 발기 능력의 저하가 일어난다.²²⁾ 한 조사에 따르면, 발기 능력의 문제를 경험하는 남성 노인의 비율이 약 35% 정도에 달하며, 60대에는 약 30%, 70대에는 약 55%, 80대에는 약 65%로 연령의 증가에 따라 그 증세가 심해진다고 보고되기도 한다.²³⁾ 발기부전의 원인으로는 특정 질병과 그에 대한 치료법도 영향을 미치며, 아울러서 개인의 심리적 상태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²⁴⁾ 노화로 인해서 남성에게 일어나는 발기 능력과 관련된 다른 증상은 발기 소요 시간이 길어지고, 발기를 위해서 직접적인 자극이 필요하며, 발기 지속 시간도 짧아지며, 발기의 강도도 약해진다. 아울러서 40세 이후에 정액의 양도 서서히 감소하기 때문에, 노인들에게서 정액의 양은 감소하고, 사정의 강도도 줄어들며, 사정 후 다음 사정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늘

22) 小林 照幸, 앞의 책, 114f.

23) 유성호 외 3인, 『노인복지론』, 304.

24) 심창교, 앞의 글, 144.

어난다.²⁵⁾ 하지만 발기의 능력과 관련된 성기능의 문제들은 비아그라 등과 같은 발기부전 치료제의 개발과 같은 의료적 개입의 발달로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노화에 의해서 여성에게 일어나는 성의 생리적 변화는 남성과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인다. 노화에 따른 남성의 성기능의 변화가 점진적인데 반해서, 여성은 50세 전후에 폐경기를 거치면서 생식능력과 관련된 성기능에 급속도의 큰 변화를 겪는다. 생식능력의 종식을 의미하는 배란의 중지도 더붙어서, 불면증, 예민함, 스트레스 통제 불능과 같은 심리적 증세 및 홍조현상이나 요실금과 같은 신체적 증세를 동반한 갱년기 장애를 겪는다. 하지만 여성의 경우에 남성노인의 발기부전과 같이 성생활의 유지에 심각한 변화와 영향을 끼치는 신체적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단지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의 감소로 성적인 흥분시에 발생하는 분비물량의 감소로 질건조증이 유발되어 성교시 통증을 유발한다. 또한 노화와 더붙어서 질의 폭과 길이 줄고, 질벽이 얇아지는 등의 생식기관의 외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민감성이 감소하거나 성교시 마찰로 인한 불쾌감이 유발되기도 한다.²⁶⁾ 하지만 이런 통증이나 불쾌감은 질윤활제의 사용 등과 같은 간단한 의학적 도움으로 해결된다. 한 마디로 여성 노인을 남성 노인과 비교하여, 생식(출산)이 아닌 성교와 관련된 성기능의 측면에서 본다면, 여성 노인이 남성 노인보다 성기능의 장애를 훨씬 적게 갖고 있다고 평가된다. 따라서 여성의 노화를 상징적으로 대표하는 폐경기, 갱년기 이라는 것이 여성에게 임신의 중단을 의미하는 것이지 성생활의 중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²⁷⁾

25) 이승재, 이연숙, 김양이, 앞의 글, 4; 참고. 최성재, 장인협, 『노인복지학』(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987), 684; 유성호 외 3인, 『노인복지론』, 304.

26) 유성호 외 3인, 위의 책, 306

27) 심창교, 앞의 글, 143.

성기능을 통한 성행위를 유발하는 동인이 되는 성욕구와 관련해서 신체적 노화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노인의 성생활 실태에 대한 조사 결과들을 보면, 노인들에게 성욕구는 평균 이상의 값을 보이고 있으며, 성기능의 정도나 성행위의 실행여부나 성생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보다 성욕구의 수준이 보다 높게 형성되는 것을 볼 수 있다.²⁸⁾ 이런 점은 신체적 노화가 성기능보다는 성욕구에 영향을 덜 미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노인의 성욕구가 신체적 노화 및 쇠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 거라는 판단은 ‘섹스는 머리(뇌)로 하는 것이 아니라 호르몬으로 하는 것이다’는 잘못된 지식에 근거하고 있다고 한다. 뇌와 성행동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성의 기능(발기 혹은 질의 윤활)을 담당하는 것은 뇌간인데 반해서, 성의 욕구를 일으키는 것은 기억, 연상, 정서, 경험 등으로 성에 대한 상상력을 관장하는 대뇌피질의 전두엽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²⁹⁾ 따라서 뇌의 기능에 이상이 없는 한, 즉 의식이 있는 한 성기능도 제한적이지만 유지될 뿐만 아니라, 특히 성경험을 하고 싶어 하는 성욕구는 인간이 죽을 때까지 지속될 수 있다고 주장되고 있다.³⁰⁾

2. 노인의 성에 대한 심리적 접근

인간의 성은 단지 생물적, 생리적 차원에서만 설명되는 것이 아니다. 금방 앞에서 성욕구를 생리적 차원에서 설명하면서도, 뇌의 활동과 관련

28) 이승재, 이연숙, 김양이, 앞의 글, 12; 김혜선, 「노년기 유배우자의 성생활 인식, 성생활 실태와 부부 관계와의 상관성 연구」, 322.

29) 小林 照幸, 앞의 책, 100f.

30) 김기영, 앞의 책, 105.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노인들에게서만 아니라, 심지어 치매환자에게서도 성욕구가 강하게 나타남을 보고하고 있으며, 따라서 치매환자를 돌보는 시설기관에서 그들의 성적 욕구와 행위에 대처할 것인지가 논의되고 있다. 참고. Benbow, Susan Mary & Beeston, Derek, 위의 글, 1029f.

된 기억, 경험, 상상 등과의 관련성 속에서 설명하고 있을 때, 이미 성의 심리적, 정신적 측면과의 연관성이 고려되고 있는 셈이었다. 생리적으로나, 물리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도 사회적, 심리적 요인들, 예컨대 금욕적인 종교적 분위기, 성행위나 생식기에 대한 혐오감, 일탈적 성행위 경험을 통한 정신적 충격 등으로 성욕의 결핍이 생길 수도 있다.³¹⁾ 심지어 남성의 성기능의 주요 요소인 발기능력의 문제도 생리적 요인보다는 스트레스 등과 같은 심리적 요인에 의한 문제라고 지적되고 있다. 성생활과 관련한 심리적인 요소는 사회적, 문화적 요인에 의해서 많은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노인의 성과 관련된, 개인의 심리적 요소만을 먼저 다루기로 한다.

먼저 노인들의 성행위에서 관찰된 표층적인 심리가 거론된다. 이것은 주로 성생활, 성교 자체와 관련된 심리적 요소에 대한 연구에서 나온다. 남성 노인의 경우에 성행위에서 중요하게 작용하는 심리적 요소는 ‘남성으로서의 자존심’이라고 지적된다. 남성은 성행위에서 성상대자를 리드하고, 또한 반드시 성상대자에게 만족을 시켜주어야 한다는 남성으로서의 자존심이 성행위의 수행에서 크게 작용한다.³²⁾ 남성 노인들이 특히 발기능력과 관련해서 남성으로서의 자존심을 민감하게 느끼면서, 이 자존심에 대한 부담감이 성행위의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확대되어 성생활의 장애로 이어지기도 한다.³³⁾

반면에 여성 노인의 성행위에서 드러나는 심리적 특징으로 거론되는 것은 여성 노인의 성에 대한 관심의 감소현상이다. 남성 노인들에 비해서,

31) 유성호, 강지현, 홍미령, 『노년의 사랑과 성』, 148f.

32) 유성호 외 3인, 『노인복지론』, 307f.

33) 유성호, 강지현, 홍미령, 『노년의 사랑과 성』, 45f. 남성 노인들이 느끼는 자신감 감소의 문제에 대한 사례가 다음과 같이 소개되기도 한다. 오진주, 앞의 글, 244: “하다가 실패하면 마누라가 싫어할 것 같기도 하고; 자신 있는 날만 하게 되자; 욕구는 있지만 실패할까 봐 두렵기도 해; 자신도 많이 없어지고”

여성 노인들은 폐경 이후에 성적 관심이 급격히 감소한다. 이런 현상은 보편적인 현상이기는 하지만, 우리 한국 사회에서 보다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이것은 유교적인 가부장적 성 관념에 의한 여성의 성적 관심의 억압이라는 사회적 요소에 기인하기도 한다.³⁴⁾ 아무튼 여성 노인에게 일어나는 성적 관심의 감소현상은 여성 노인이 성행위를, 성생활 상대자인 남성 노인의 성행위의 요구에 대한 의무감으로 여기게 만든다. 성생활이란 부부의 원칙으로서 상대방이 원하면 할 수 없이 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여성 노인에게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성적 욕구의 비대칭성에서 일어나는 의무로서의 성생활이 수용과 이해의 수준을 넘어서면, 남성 노인과 여성 노인의 성 갈등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성 갈등으로도 변질 수 있는 이런 문제는 보다 근본적으로 남성과 여성이 일반적으로 성행위에 대한 기대와 이해의 차이에 기인하기도 한다. 성행위를 통해서 남성은 육체적인 접촉과 반응이 본질적이고 우선적이라고 보면서, 정서적이고 심리적인 만족감은 그것에 부수적으로 동반하는 것으로 여기는 것에 반해서, 여성은 육체적인 측면의 반응보다는 정서적이고 심리적인 만족을 더 중요시한다고 알려져 있다.³⁵⁾ 다시 말해서 남성은 성교 중심적 성 기대를 가짐에 반해서, 여성은 심리적, 정서적 일체감에 대한 기대를 우선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성 노인은 성행위 상대자와의 정서적 일치와 친밀감의 표현으로 성교에 응하는 경우가 적지 않음에 노인들의 성생활에 대한 실증적 연구에서도 확인된다.³⁶⁾

물론 성행위를 통해서 성행위 상대자와의 정서적 일치와 친밀감의 확인과 같은 요소가 성행위에 임하는 여성 노인의 전유물은 아니다. 남성

34) 심창교, 앞의 글, 145.

35) 김혜선, 「중년 후기 남녀 유배우자의 부부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 성생활을 중심으로 -」, 한국노년학회, 『한국노년학』, 2008, Vol. 28, No. 1, 53.

36) 오진주, 앞의 글, 239f.

노인이 노화와 더불어서 겪는 성기능의 감소, 성 호르몬의 변화 등은 이전에 ‘여성적이라고’ 여겼던 부분들에 대한 수용을 넓혀가게 된다. 이와 더불어서 남성 노인도 성행위에서 성교를 통한 성욕구의 극대화만이 아니라, 상대방과의 정서적 일치감과 친밀감을 통해서 외로움의 해소, 위로, 자기정체성 확립 등과 같은 성행위의 심리적, 정서적 만족감의 중요성을 인지하게 된다. 물론 성행위의 정서적, 애정적 차원에 대한 관심이 여성 노인에 비해서 남성 노인에게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보인다.

노년의 성 담론을 주도하는 노년복지나 노년학의 분야에서도, 인간의 성은 성욕, 생식, 애정이라는 3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면서, “노년기의 성은 결코 단순한 성교 행위에 머무르지 않고 직접적인 성적 욕구충족과 함께 위로, 위안이라는 애정적이며 정신적인 의미와 보다 넓은 인격 전체와 관련이 있는 심리적 행동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³⁷⁾ 그런 점에서 본다면 노년의 성행위를 성교에 한정해서 현상적으로 연구하고 거론하게 되면, 성행위에서의 정서적, 심리적 차원, 성행위에서의 애정과 사랑의 요소가 간과되기 쉽다. 하지만 현재 노년복지학이나 노년학의 담론에서는 성교 중심으로 성행위를 다루고 있는 것은 문제가 된다. 물론 이런 문제점에 대한 자각이 노년복지학이나 노년학에서도 발견되기도 한다.

“노인들의 성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 하나의 문제점으로 거론되는 것은 성행위의 유형을 분류하여 조사하지 않고 주로 성교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성행위를 사랑의 표현으로 본다면 성교만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 특히 오랜 세월을 함께 살아온 노부부에 있어서 성교 그 자체가 가지는 의미보다는 서로간의 믿음을 바탕으로 한 진실한 대화와 키스나 포옹 등의 신체적 접촉을 통한 정신적 사랑은 서로의 애정을 표현하는

37) 이승재, 이연숙, 김양이, 앞의 글, 5.

방법으로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³⁸⁾

노인의 성생활 실태에서 관찰되었던, 남성 노인의 ‘자존심’이나 여성 노인의 ‘의무감’은 성교로서의 성행위와 관련된 표층적 심리가 어떤 상태 인지를 드러내는 결과였다. 이런 표층적인 심리적 분석만으로는 노인의 성행위에 대한 논의가 총체성과 심오성을 확보하기가 어렵다. 성행위의 심층적 심리적 차원으로서의 위로, 친밀감, 애정, 사랑에 대한 요소가 노인의 성행위에서 가지는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어야 할 것이며, 특별히 남성 노인의 성에 대한 태도와 관련된 연구나 교육과 관련해서는 이 요소가 더욱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 노인의 성에 대한 사회적 접근

1) 성행위 상대자와의 관계

성행위는 본래적으로 두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사회적 행위이다. 한 개인이 홀로 성행위를 하는 자위도 있지만, 본래적으로는 두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성교, 애무, 접촉 등이 보편적인 성행위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성생활 상대자라는 사회적 관계에서 일어나는 노인의 성행위를, 먼저 부부관계 안에 있는 노인의 관점에서, 그 다음에 부부관계에 있지 않은 노인의 관점에서 다룰 것이다.

그 전에 먼저 노년기 성생활 상대자의 인구학적 통계를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측면에서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³⁹⁾ 먼저, 성비의 불균형이 노인 인구에서 심각하게 나타난다. 2010년 현재, 우리나라 여성 노인 100명당 65세 이상은 남성 62명, 70세 이상은 남성 53.8명, 80세 이상은 39.1명이다. 여성 노인이 남성 노인보다 매우 많다. 이런 현상은 남성보다 여성의

38) 유성호 외 3인, 『노인복지론』, 299.

39) 유성호, 강지현, 홍미령, 『노년의 사랑과 성』, 35f.

평균수명이 길기 때문에 모든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런 노인의 성비율은 성생활 상대자의 비율에 불균형을 초래하기 때문에 노인의 성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둘째, 우리나라 65세 이상의 노인 중 약 50%가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는 유배우자의 상황인데 반해서, 나머지 50% 정도는 배우자와 사별이나 이혼 등으로 혼자 살고 있는 무배우자의 상황에 있다. 무배우자 노인에게서도 성비의 불균형이 나타나서, 남성 노인의 무배우자 비율은 약 18%인데 반해서, 여성노인의 무배우자 비율은 약 74%에 달한다.⁴⁰⁾ 이런 인구학적 관찰에서 본다면, 성상대자의 제도적, 안정적 확보라는 측면에서 여성노인이 성생활에서 매우 불리한 상황에 처해 있음을 알 수 있다.

(1) 유배우자 노인의 성

노년기는 그 어느 시기보다도 부부관계가 중요한 때이다. 노년기의 배우자는 인생의 동반자이자, 신체적으로 힘들 때 가장 가까운 부양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뿐만 아니라 배우자는 결혼 제도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보장된 성생활 상대자이다. 배우자가 있는 노인들은 과거 젊은 시절에 가졌던 자신의 과거의 정력이나 매력을 다시 원하지 않는다면, 성적 욕구를 어느 정도 해소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많은 노년기의 부부들이 실제로 성생활을 하고 있으며, 또한 절반 이상이 성생활에 대해서 만족감을 보이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⁴¹⁾ 노년기의 만족스러운 성생활은 노년기의 전반적인 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의학적으

40) 나임순, 「고령화 사회의 노인 성문제와 대안에 관한 연구」, 133.

41) 김혜선, 「노년기 유배우자의 성생활 인식, 성생활 실태와 부부 관계와의 상관성 연구」, 324. 강원도의 노년기 유배우자 86명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 성생활 욕구는 비교적 높게 나타났지만, 성생활을 전혀 하지 않는 경우가 46.5%였으며, 성생활에 대해서 만족감을 나타내는 비율은 54.7%였다. 성충동 해결방법으로는 45.3%가 배우자와의 성관계를, 30.2%는 이성친구나 자위를 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로도 건강에 도움이 되며, 또한 노년기의 고독감의 해소와 삶에 대한 보람을 느끼게 해주면서, 건강하고 행복한 부부관계를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한다.

하지만 배우자와의 원활한 성생활을 이루지 못하면서 나타나는 갈등은 부부갈등의 주요 원인이 된다. 또는 역으로 부부갈등이 첨예화되면서 성생활의 갈등을 증폭시키기도 한다. 노년기 부부간의 의사소통과 감정소통의 상태가 부부의 사회문화적, 인지적 측면에 걸쳐 압축적으로 표현되는 영역이 바로 노년 부부의 성이기 때문이다.⁴²⁾

노년 부부간의 성 갈등은 노인 젠더의 문제의 양상으로 나타난다. 노인 부부의 관계 안에서 남성의 성이 여성의 성에 대해서 적극성, 공격성, 일방성을 보인다. 남성 노인이 여성 노인보다 성욕구를 강하게 가지며, 또한 남성 노인이 여성 노인보다 성욕구의 표현도 강하고 공격적으로 나타난다. 성인식도와 성생활만족도에서도 남성 노인이 높게 나타나고, 여성 노인이 훨씬 낮게 나타낸다.⁴³⁾ 한 연구에 따르면, 성욕구의 해결 방식에서도 남성 노인(54%)은 자신의 성욕구 해결을 배우자와의 성관계와 같은 직접적인 성생활 활동으로 해결하는 비율이 여성 노인(33%)보다 높았지만, 여성 노인(67%)은 자신의 성욕구 해결을 ‘의지나 종교의 힘’ 또는 ‘취미나 운동 활동’과 같이 - 배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 성생활과 무관한 방법으로 해결하는 비율이 남성 노인(37%)보다 높았다.⁴⁴⁾ 이와 같은 남성 노인 중심의 성욕구 해결태도는 배우자와의 성관계에서도 일방적인 태도를 보인다. 여성 노인은 남편의 건강상태, 성적 능력, 성욕구의 상황을 고려하여 자신의 성적 활동을 조절하거나 억제하는 경우가 적지 않지

42) 참조 이호선, 「노년기 성 갈등 유형의 상호학문간 연구 - 사회학적, 신학적, 목회상담학적 접근」(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43) 김혜선, 「노년기 유배우자의 성생활 인식, 성생활 실태와 부부 관계와의 상관성 연구」, 332.

44) 김혜선, 위의 글, 327.

만, 남성 노인이 부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거나, 성욕이 없다고 해서 성적 활동을 억제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고 한다.⁴⁵⁾ 이런 현상은 한국 사회만이 아니라 현대 서구사회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여성 배우자 노인에 대해서 남성 배우자 노인이 가지는 자기중심적이고 공격적이고 일방적인 성생활의 태도는 성갈등을 유발하게 된다. 노년 부부의 성갈등을 조사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노년 부부의 성갈등은 주로 여성 노인의 성교 거부로 나타난다. 남성 노인의 성교 요구에 대해서 여성 노인이 성교를 거부하면서 가벼운 언쟁의 형태로 갈등이 표출되거나, 여성 노인의 성교 거부를 남성 노인이 수용하면서 포기하는 형태로 갈등이 표출되기도 한다. 또는 여성 노인의 성교 거부 과정에서 심각한 언쟁을 거치면서 부부간의 대화가 단절되는 형태로 갈등이 표출되기도 한다. 가장 심각한 갈등의 형태는 여성 노인의 성교 거부에 대해서 남성 노인이 권위를 내세우며 폭력을 행사하거나, 남성 노인에 대한 인격적 무시로 나타나는 여성 노인의 성교 거부에 대해서 남성 노인이 보복적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며, 남편의 억압적 성교 제의를 수용함에도 불구하고 남성 노인의 무조건적 폭력이 여성 노인에게 행사되기도 한다.⁴⁶⁾

이런 성갈등은 남성 노인의 성교 요구에 대한 여성 노인의 성교 거부에서 비롯되었는데, 여성 노인들이 성교를 거부하는 여러 이유들 중에서 하나의 이유로 폐경 후 질건조증으로 겪는 성교통증이 거론된다. 하지만 이 문제는 앞에서도 밝혔듯이 의료적 도움으로 대체로 쉽게 해결될 수 있다. 하지만 여성 노인들이 성교를 거부하는 또 다른 이유이자, 더욱 중

45) 김혜선, 위의 글, 333.

46) 이호선, 「유배우자 여성 노인 성 갈등 유형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회, 『한국노년학』, 2004, Vol. 13, 81; 이호선, 「유배우자 남성 노인 성 갈등 유형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연구회, 『한국노년학연구』, 2004, Vol. 13, 77f.

요한 이유로 부부간의 정서적 교류에 대한 여성 노인의 불만족이 거론된다. 여성 노인들의 성 인식에서는 성관계의 유무보다도, 성에 대한 느낌이나 배우자와의 감정상태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 여성 배우자들이 결혼을 통해서 남성 배우자로부터 기대했던 부부 사이의 ‘관계적 보상’(애정, romantic relationship)⁴⁷⁾이 남성 배우자에 의해서 제공되지 않자, 양육의 문제 등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워진 노년기에 이르러 여성 배우자가 남성 배우자에 대한 ‘차별’로 성교를 거부하여 부부 사이의 교환이 중지되면서 성갈등이 유발된다고 설명된다.⁴⁸⁾ 이런 갈등의 해결을 위해서는 부부간의 의사소통의 원활함이 요청된다. 더구나 젊은 시절 결혼 초기부터 원활한 의사소통이 되고 있어야 이런 갈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부부관계에 대한 기대보상이 채워지지 않음으로 발생하는 성갈등은 남성 노인 배우자와 여성 노인 배우자 사이의 성욕구의 비대칭성에 의해 더 심화된다. 남성의 성욕구와 성활동의 왕성함은 조장되고, 때로는 자랑거리로까지 인식되기도 하지만, 여성의 성욕구와 성활동은 숨겨지고 억압되어 왔다. 남성과 여성의 성에 대한 태도의 차이는 현대의 개방적 사고방식에 익숙한 젊은 세대보다 가부장적 사고방식에 더욱 익숙한 노인 세대에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 여성노인의 성욕구는 여성 ‘자신을 위한’ 성욕구로서 수용되지 않고, ‘타존재를 위한’ 성욕구로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강하다. 그런 경우에 여성 노인들은 성의 문제에서 주체적인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자신의 성욕구에 충실하지 못한다. 성행위는

47) 참조. 김윤정, 서선영, 「중노년기 부부간 romantic relationship」, 한국노년학회, 『한국노년학』, 2005, Vol. 25, No. 1, 87; 이혜자, 김윤정, 「부부관계(사랑과 성)가 노년기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회, 『한국노년학』, 2004, Vol. 24, No. 4, 208f.

48) 이호선, 「유배우자 여성 노인 성 갈등 유형에 관한 연구」, 82. 이런 분석은 사회 교환 이론에 근거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사회 교환 이론은 사회적 활동을 사람들 간의 활동의 교환으로 보면서, 사람들 사이에 보상이 반복적으로 교환될 때 대인 관계가 형성된다고 설명한다. 참조. 이호선, 위의 글, 71.

가문의 대를 이룰 타자의 출산을 - 그것도 이미 폐경으로 폐기된 목적 - 위한 것이거나, 남성의 성욕구를 실현하는 행위에 대한 어쩔 수 없는 대응으로 느껴지고 있기에 여성 노인의 성욕구는 감소할 수밖에 없다.⁴⁹⁾ 이런 상황은 노년 부부의 성갈등을 조성할 토대가 된다. 따라서 이러한 성의식 내지 성욕구의 비대칭성 내지 일방성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성교육이나 성상담을 통해서 여성 노인들이 자신의 성에 대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 동시에 남성 노인들의 경우에도 여성 노인들의 소극적 성욕구와 자세를 인정하고, 여성 노인들이 성관계에서 기대하는 부부관계의 정서적 측면의 만족의 중요성을 인정하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

(2) 무배우자 노인의 성

노인의 성욕구 수준은 대체 남자이며, 젊을수록, 고학력일수록, 유배우자이고, 건강할수록 높다. 유배우자 노인의 성욕구가 무배우자의 성욕구보다 높다. 그리고 무배우자 남성 노인이 무배우자 여성 노인보다 높은 성욕구의 수준을 보인다. 무배우자 노인은 배우자의 부재로 인해서 성생활이 불가하거나 어렵기 때문에 자신의 성욕구를 억제한 결과로 여겨진다. 하지만 이것은 상대적인 비교이지, 무배우자 노인이라고 해서 성욕구나 성에 대한 관심이 현저히 낮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사별이나 이혼 등으로 홀로 되었을 때에 가지는 상실감으로 인해서 더 큰 외로움과 고독감을 느끼면서,⁵⁰⁾ 이런 고통을 해소하고자 이성 친구와의

49) 김연순, 「생애사를 통해 본 여성노인의 섹슈얼리티」, 대한여성건강학회, 『여성건강』, 2005, 제6권 2호, 138.

50) 사별이나 이혼 등으로 홀로 살게 되었을 때 여성 노인보다 남성 노인들에게 정서적 적응 문제가 더 심하게 나타난다고 한다. 조임현, 「홀로된 남성노인의 성생활 만족을 위한 사회복지정책적 접근」,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사회복지정책』, 2013, Vol. 40, No. 1, 7f.

교제나 재혼 상대자를 원하는 노인들이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⁵¹⁾ 그리고 이때 이성 친구와의 교제나 재혼 상대자 구하기가 외로움의 해결책이자 성욕구의 해소책으로 원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⁵²⁾ 오히려 무배우자 노인들의 이성교제에 대한 관심에 주도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성생활에 대한 관심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⁵³⁾

이런 점에서 볼 때 무배우자 노인들도 유배우자 노인 못지않게 성적 욕구와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성적 행위의 상대자를 상실한 무배우자 노인들은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서 가장 단순하게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자위행위(성욕구를 억제하는 다른 활동을 포함해서)이다. 많은 무배우자 노인들이 성욕구의 해소를 위해서 자위행위를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⁵⁴⁾ 하지만 자위행위로는 불만족을 느끼기에 궁극적인 욕구해결 방법으로 이성교제 내지 재혼을 원한다. 그러나 자위행위를 넘어서 이성교제를 통한 직접적인 성관계로 이어지는 경우가 남성 노인에 비해서 여성 노인이 월등히 적다.⁵⁵⁾

무배우자 노인들의 대부분이 성욕구의 해소를 위해서 이성교제나 재혼을 희망할 때에 남성 노인과 여성 노인은 입장의 차이를 보인다. 여성 노인은 이성교제만을 원하는 경우가 많고, 남성 노인은 재혼까지 원하는

51) 나임순, 「고령화 사회의 노인 성문제와 대안에 관한 연구」, 135. 한 노인전화의 상담통계에 의하면, 무배우자 노인 중 63.4%가 고독과 외로움의 고통을 호소하며, 그 중에서 93.3%는 이성친구의 소개를, 이 중에서 31.7%는 재혼까지 이르기까지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52) 강현숙, 「노년기 성에 관한 질적 연구: 무배우자 노인의 성욕구 실태와 해소유형을 중심으로」(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44.

53) 최은영, 「무배우자 노인의 성생활 인식과 성 욕구 대처행동」(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38.

54) 유성호, 강지현, 홍미령, 『노년의 사랑과 성』, 52f.

55) 무배우자 여성 노인들이 이성 교제나 재혼의 기회에서 남성 노인에 비해서 불리한 형편에 처해있다. 그 이유는 노인인구의 성비의 불균형과 가부장적인 전통적 성도덕에 따른 여성 노인의 소극적인 성태도에서 찾을 수 있다. 강현숙, 앞의 글, 45.

경우가 많다. 이는 여성 노인이 재혼에 따른 자녀들과의 관계의 어려움이나 남성 노인의 수발의 어려움을 예상하면서 성관계가 가능한 이성교제를 선호하는 반면에, 남성 노인은 여성의 수발을 받으며 지속적인 성욕구 해소가 가능한 재혼을 선호하기 때문이다.⁵⁶⁾

사실상 무배우자 노인의 남은 생애의 행복을 위해서 가장 이상적인 방안은 무배우자 노인의 재혼이다. 노인들이 배우자를 잃을 때에 가지는 상실감과 고독감은 젊은 사람들에게 비해서 더 크게 느껴진다. 거기에는 핵가족화에 따른 가족 내에서의 연대감이 약화되고, 사회적 활동의 부재로 인한 인간관계의 단절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배우자의 상실은 노인에게 큰 충격을 가져다준다. 무배우자 노인이 유배우자 노인보다 외로움의 빈도가 훨씬 높고, 생활만족도에서도 매우 불만족한 것으로 조사되었다.⁵⁷⁾ 그런 점에서 무배우자 노인이 새로운 이성의 노인을 만나서 서로 의지하고 보살피며, 고독감과 적막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재혼을 원한다. 그리고 노인들이 재혼을 원하는 이유 중에는 성적 욕구가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된다.

최근에 노인들이 재혼에 대해서 가지는 태도는 점차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다. 즉 이전보다 더 많은 무배우자 노인들이 재혼을 희망하고 있다. 또한 실제적인 재혼의 건수도 2012년 현재 2005년에 비해서 남성 노인 1.6배, 여성 노인 2.2배가 증가했다.⁵⁸⁾ 하지만 실제적인 재혼의 성공률은 높지 않다. 한 조사에 따르면, 무배우자 노인 중에서 62.5%가 재혼을 희망했지만, 재혼을 희망한 노인 중에서 재혼에 성공한 사람은 48%에 불과했다.⁵⁹⁾ 재혼을 희망하고 시도했지만 재혼에 성공한 경우는 반 밖에 안

56) 강현숙, 앞의 글, 46.

57) 나임순, 「고령화 사회의 노인 성문제와 대안에 관한 연구」, 133.

58) 통계청, 「2013년 고령자 통계」

59) 김기영, 위의 책, 198.

된다는 말이다.

사별 후 재혼이든, 이혼 후 재혼이든 노인들의 재혼 성공에 걸림돌이 되는 요인으로는 노인 당사자의 전통적, 유교적 인식도 거론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들의 반대이다.⁶⁰⁾ 홀로된 노인이 이성 친구를 사귀고 결혼하겠다고 하면, 자녀들은 남의 이목이나 체면을 생각해서 창피하다는 반응을 보이면서 반대한다. 또 때로는 돌아가신 부모, 혹은 이혼한 부모에 대한 강한 기억 속에서 과거를 그대로 유지하려 하면서 반대하기도 한다.⁶¹⁾ 장성한 자녀들이 대개는 자신들의 자녀에 대한 뒷바라지를 생각하면서, 부모세대의 삶에 대해서는 종결을 준비하고 있는 차에 노인의 재혼을 통해서 새로운 가족관계가 발생하고, 여기에 적응해야 한다는 것은 자식들에게 부담으로 여겨진다. 더구나 부모를 부양하는 자녀들의 입장에서서는 계부나 계모의 부양을 위한 경제적 부담이 늘어나는 것에 부담을 느낀다. 아울러서 호적문제의 정리나 계부모 사후의 제사문제 등도 더욱 복잡하게 되는 것이 자녀들에게는 부담이 되기에 황혼 재혼에 반대한다. 이런 문제는 부모와 자식의 삶이 개인주의적으로 쉽게 구분되는 서구 사회와 달리, 우리 한국의 사회가 핵가족화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가족제도 혹은 가족공동체주의에 의해서 크게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하지만 홀로 된 부 혹은 모가 노인이라고 해도 여전히 한 인간으로서 자신의 삶을 영위하고 자신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 곧 개인의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는 인식의 전환이 자식들에게 일어나야 한다.

노인들의 재혼에 대한 자녀들의 반대에는 재산분할의 문제도 현실적으로 크게 작용한다. 부모가 정식으로 혼인을 하면, 혼인 기간에 상관없이

60) 이호선, 앞의 책, 140; 김기영, 앞의 책, 198

61) Butler, Robert N. & Lewis, Myrna I., *The New Love and Sex after 60*(2002), 우행원 역, 『새로운 60세 이후의 성과 사랑』(서울: 하나의학사, 2005), 225.

배우자는 자녀 일인당의 지분보다 1.5배 많은 재산의 지분을 얻게 되기에, 재혼으로 인해서 자녀들은 부모의 재산에 대한 상속이 줄어든다.⁶²⁾ 부모의 재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구도의 변화에 따른 어려움이 재혼을 어렵게 만드는 상황은 이미 미국에서도 일찍부터 발생해왔으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결혼 전 동의서' 작성 제도를 마련하여, 결혼 전에 재산의 분배와 상속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결혼 당사자들이 합의를 해두도록 하고 있다. 재혼 후의 재산분할 문제는 계부모와 자식 간의 상속문제의 갈등뿐만 아니라, 재혼 후에 일어날 수 있는 이혼으로 인해서⁶³⁾ 배우자 당사자 사이에서 일어나기도 한다. 우리나라에도 '부부재산 약정제도'가 이미 시행되고 있기에, 노인들의 재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의 갈등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적극 활용될 수 있다.⁶⁴⁾ 부부 사이에, 혹은 계부모와 자식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재산분할의 문제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서 법률적인 제도를 미리 마련하자는 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더구나 노인들에게 정서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건전한 황혼 재혼의 성공률을 높이는 데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기에, '부부재산 약정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혼의 재혼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새로운 배우자를 만나서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여생을 원하는 노인들이 재혼에 대한 현실적인 대체방안으로 황혼 동거의 방법을 택하고 있기도 한다. 재혼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지적하면서, 황혼 동거에 대한 사회의 긍정적인 시선을 제안하기도 한다.⁶⁵⁾ 하지만 황혼 동거의 실태와 규모,

62) 위의 책, 227-232.

63) 한 조사에 따르면 어렵게 이루어진 황혼 재혼이 여러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만난 지 1년 이내에 30%가 다시 이혼을 했다고 한다. 나임순, 「고령화 사회의 노인 성문제와 대안에 관한 연구」, 134.

64) 김기영, 앞의 책, 202.

65) 김기영, 앞의 책, 203-205.

그리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조사와 연구가 되어 있지 않다. 동거에 - 노인의 동거든, 젊은이의 동거든 - 대한 도덕적 부담감, 동거의 관계에 있는 남녀 모두가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그리고 이런 부담들은 대체로 여성 노인에게 차별적으로 가중된다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황혼 동거가 황혼 재혼에 대한 대체방안으로 모색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3) 시설입소노인의 성

성에 대한 욕구가 있지만 성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노인들의 상황은 노인시설입소자의 경우에서도 나타난다. 대체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스스로 활동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노인들은 노인시설로 입소하여 생활하게 된다. 이처럼 본인의 집에 머무는 노인들보다 노인시설에 머무는 노인들은 육체적으로 더욱 쇠약해져 있는 상태이기에, 시설입소노인의 성욕구와 관심은 소진했을 것으로 간주되기 쉽다. 그래서 시설입소노인들의 성적 정체감은 매우 취약하게 보호되고 있다. 통상 시설노인들은 성별로 분리되어 생활한다. 심지어 부부가 동반 입소해도, 동거를 하게 하는 시설은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 노인들의 성적 활동은 극도로 제약을 받는 형태로 노인시설이 운영된다. 그 이유는 노인시설 종사인력의 문제와 가족으로부터의 비난에 대한 염려, 그리고 성관계를 허용하는 경우에 성 관련 문제의 확대에 따른 후속조치의 어려움 등에서다.

하지만 입소노인들의 성적 관심은 결코 낮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미국의 한 연구에서는 입소남성노인의 81%, 여성의 75%가 성교를 허용해야 한다고 응답했다고 한다.⁶⁶⁾ 그리고 종사자들의 눈을 피해서 시

66) 오진주, 「무료 노인시설 성 보호 환경과 종사자들의 관련 태도 및 활동 정도」, 한국노년학회, 『한국노년학』, 2002, Vol. 22, No. 3, 99-113,

설노인들의 성적 활동이 일어나고 있으며, 시설종사자들의 입장에서는 성의 '문제'로 인식되면서, 이에 대한 시설종사자들의 대처방안에 대한 모색이 논의되고 있다. 일찍이 노인시설이 발전한 외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노인시설에서도 자위행위가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노인의 성행위로 보고되고 있으며, 이어서 인력에 대한 성적 유인, 공공장소에서의 성 이상행동, 시설입소노인들 사이의 성교도 보고되고 있다.⁶⁷⁾ 더 이상 노인시설에서의 성문제를 모른 채하거나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면서, 노인들의 삶의 질과 존엄성을 생각하여 시설에서의 성생활이 가능하도록 시설을 보완하고, 운영방향도 전환되어야 할 것을 제안하기도 한다. 심지어 성생활이 시설입소노인의 활동성과 생동성을 더욱 강화하고, 심지어 사망률까지 낮추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⁶⁸⁾ 하지만 자유로운 이성교제를 통한 성생활의 허용은 시설운영자의 입장에서 가족들로부터의 비난에 대한 고려 속에서 대체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대신에 유배우자들의 경우에 시설입소자가 정기적으로 가정을 방문하도록 허락하는 제도는 별 다른 부담 없이 시설입소노인의 성을 보호하는 바람직한 방안으로 거론된다.⁶⁹⁾

2) 사회적 문제로서의 노인의 성

사회적 인식이나 주거 형태의 상황과 같은 사회적 환경이나, 배우자와의 이별, 발기부전, 배우자와의 성갈등 등의 개인적 환경에 의해서 노인들의 성적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노인의 성이 사회적인 일탈행위로 나타나기도 한다. 노인의 성적 일탈행위는 노인 성범죄의 증

67) 위의 글, 105.

68) 위의 글, 110.

69) 유성호 외 3인, 앞의 책, 309.

가로 나타나고 있다. 고령화 사회가 되어감에 따라 노인들의 수가 증가하면서 노인들의 범죄 건수 자체가 증가할 뿐만 아니라, 노인범죄가 상대적으로 차지하는 비율도 높아지고 있다. 1985년 전체 범죄 중 노인범죄가 차지하는 비율이 1.9%였으나, 2010년에는 5.9%로 세 배 이상 증가했다.⁷⁰⁾ 현재 한국의 노인인구 비율이 전체인구의 12.2%인 점과 비교하면, 아주 심각하다고까지 말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전에는 노인들이 범죄의 선량한 피해자로 여겨지고 있다가, 이제는 노인범죄가 소년범죄보다 발생건수와 비율을 넘어서면서 노인범죄가 주된 교정연구의 대상이 될 정도에 이르렀다. 한 연구에 따르면, 강력범죄에서 노인의 범죄비율이 1985년 2.3%에서 2007년 7.7%로 크게 증가했다. 살인범죄도 크게 증가했지만, 성범죄도 크게 증가했다. 노인 강간범의 경우 1985년 1.1% 수준에서 2007년 4.1%로 크게 증가하였다. 더구나 노인 성범죄의 대상이 정신지체 여성이나 아동 등으로 집중되고 있는 점은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⁷¹⁾ 이처럼 노인의 성범죄가 증가하는 것은, 이전에 비해 더 젊고 건강해진 노인들의 성욕구는 증가하는 반면, 그 성욕구를 해소하거나 통제하는 정상적이고 건전한 방법을 찾지 못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노인의 성적 일탈행위는 또한 노인 성매매의 증가로 나타난다. 노인 성매매는 최근에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면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 이른바 원조교제와 같이 청소년들이 성매매 대상으로 부각되기도 하지만, 대개의 경우는 노인들이 모이는 고정적인 장소에서 매매춘 여성과의 사이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서 종묘일대에 성매매에 나서는 여성은 대략 200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으며, 이른바 ‘박카스

70) 최준, 「노인범죄의 동향과 교정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교정학회, 『교정연구』2013, 58호, 135; 참고. 김기현, 「고령화시대의 노인 범죄 실태분석을 통한 범죄예방에 관한 연구」, 한국교정학회, 『교정연구』2011, 52호, 165f.

71) 한동효, 「고령화 사회의 노인범죄의 추이와 영향요인 연구」,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2008, 제12권 제2호, 105.

아줌마', 조선족, 노숙인, 심지어 지적 장애인까지 성매매 대상으로 나서고 있다.⁷²⁾ 아울러서 최근 노인들의 주요 놀이공간 중의 하나로 각광받고 있는 노인 전용 '콜라텍'이 서울 시내에만 80여 곳 이상이 있는데, 이곳에서 스킨십과 같은 가벼운 성적 표현에서 성매매까지 이루어지고 있다.⁷³⁾ 이처럼 한국 사회에서 다양한 형태로 노인의 성매매가 증가하고 있다.

노인의 성매매가 증가하면서 불가피하게 노인의 성병 감염도 증가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성병 감염자는 해마다 줄어들고 있지만, 65세 이상 노인의 성병감염자는 계속 늘고 있다고 한다.⁷⁴⁾ 심지어 전체 에이즈 감염자 중 노인 비율도 최근에 높아지고 있다. 이처럼 노인의 성병 감염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매매층의 증가와 더불어서, 성병에 대한 노인들의 인식과 태도와도 연관이 있다. 노인들은 제대로 된 성교육을 받지 않아서 성병에 무감각하고, 또한 노인이라는 체면 때문에 성병에 걸려도 치료를 받으러 의료기관에 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처럼 노인의 성병이 은폐되다 보니 오히려 전염이 더욱 빠르게 일어나게 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노인들의 보건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따라서 노인들의 성교육 및 성보건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노인들의 이런 일탈적 성행위에 대한 성별적 구분의 분석이 필요하다. 이런 일탈적 행위의 대부분은 남성 노인이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노인의 성범죄, 성매매, 성병 감염의 경우에 남성 노인이 양적으로 절대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남성 노인과 여성 노인의 성비율, 남성 무배우자 노인과 여성 무배우자 노인의 성비율, 성행위의 빈도와 성생활

72) 김기영, 앞의 책, 112.

73) 이호선, 앞의 책, 137.

74) 2006년 종묘공원에 있던 노인 205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성병감염실태조사에서 약 8.8%가 매독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김기영, 앞의 책, 111.

만족도에서의 남성 노인과 여성 노인의 성비율을 모두 고려하면, 여성 노인이 남성 노인보다 사회적인 성문제와 일탈행위를 더 많이 일으켰어야 할 것으로 추론된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나타났다. 따라서 노인들의 사회적 성문제와 일탈행위에 대해서 접근할 때에 남성 노인과 여성 노인의 차이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적어도 현재로는 노인의 성과 관련된 사회적 문제와 일탈행위는 남성 노인의 문제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IV. 노인의 복지와 성

1. 노인 삶의 향상과 성 생활

노인에게서 성적 활동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성생활이 노인의 삶에 미치는 유익함에 대한 발견으로 강화된다. 노인의 성생활이 노인의 삶에 가져다주는 유익은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논의된다. 첫째는 노인의 성생활이 신체적인 건강과 노화의 저지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심장에 문제가 있는 경우 등과 같이 성생활이 노인이 건강에 해로울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정상적인 성생활이 노인들의 건강유지에 도움이 된다고 한다. 성활동은 다른 운동보다 칼로리 소모가 높은 운동이며, 노화방지 호르몬을 증가시켜서 노화를 방지하기도 하며, 강력한 진통효과가 있는 호르몬을 분비시켜주며, 면역력을 높이며, 뼈를 튼튼하게 하여 여성의 골다공증 예방효과를 가지며, 남성의 전립선 질환의 예방효과 등도 가진다고 주장한다. 이런 주장들은 상당한 임상적 통계를 거쳐서 신빙성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된다.⁷⁵⁾ 노인의 성생활이 노인의 신체적 건강에 좋은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노인의 성생활의 가치가 주목된다.

75) 김기영, 앞의 책, 100-104.

들째는 보다 포괄적으로 노인의 성생활이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것이다. 의학의 발전으로 수명이 연장되면서 이제 노인들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는다. 즉 수명의 연장이라는 삶의 양의 확장만으로는 만족하지 않는다. 의학의 발전으로 이전보다 노인들의 건강상태도 좋아지고, 경제적 여건도 나아지면서, 노인들은 여생에서 다양한 욕구들을 충족시키면서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를 원한다. 그런 점에서 노인의 성 문제는 노인의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에서 논의된다. 여러 조사들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건강상태, 경제상태와 더불어서 성생활상태가 노인들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데,⁷⁶⁾ 성생활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를 살펴보면, 성생활 만족도가 높을수록 노인들의 삶의 만족도가 높았으며, 성생활을 하고 있을수록, 성생활에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을수록 노인들의 삶의 만족도가 높았다.⁷⁷⁾ 아울러서 성생활을 하고 있고, 성생활에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을수록 결혼만족도도 높게 나타났다.⁷⁸⁾ 하지만 성생활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남성 노인과 여성 노인의 차이가 발견된다. 남성 노인의 경우에 현재 성생활을 하고 있는 집단에서 자아존중감도 높았고, 삶의 만족도도 높게 나왔지만, 여성 노인의 경우에는 성생활 유지여부가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이런 차이는 생식기 삽입에 의한 직접적인 상관관계만을 성생

76) 나동석, 김영대, 「노인의 성생활과 성태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인복지학회, 『노인복지연구』, 2011, 통권 52호, 190.

77) 위의 글, 198; 김보미, 「노인의 성태도가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23.

78) 권오혁, 허준수, 「노년기 부부의 결혼만족에 관한 연구」, 한국노인복지학회, 『노인복지연구』, 2010, 통권 47호, 25; 이윤로, 유시순, 「노인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임상사회사업학회, 『임상사회사업연구』, 2004, Vol. 1, No.1, 17: 이 연구에 따르면,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순서대로 그 변수들을 나열하면, 부부간 의사소통, 부부간 정서적 지지, 부부간 성생활 만족, 성별, 부부간 사회 및 여가활동 참여 여부로 나왔다. 여기서도 물론 부부간 성생활 만족도가 높을수록 노년기 부부의 결혼만족도가 높았다.

활의 유지라고 생각하는 남성 노인의 성관념과, 그리고 보다 포괄적인 차원의 성관계, 특히 정서적 친밀감을 일으키는 광범위한 의미에서의 성행위의 실행을 성생활의 유지라고 생각하는 여성 노인의 성관념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이런 성별적 차이가 노인의 삶의 만족도의 제고를 위한 노인의 성생활의 활성화를 논함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한다.

2. 노인의 성생활의 활성화 방안

노인에게서 성생활의 중요성이 인식되면서 노인의 성생활을 활성화하기 위한 여러 방안들이 두 가지 방향에서 논의되고 모색되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노인의 성에 대한 노인복지학적 연구들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개인차가 있기는 하지만 노인들은 성적 욕구를 가지고 있고, 성적 기능도 가지고 있지만, 성적 욕구를 해소할 적절한 방법을 찾는데 어려움을 가지고 있으므로 도움 방안을 찾아서 제공하자는 것이다. 노인복지학 내지 노년학에서 일반적으로 제안된 방안들을 두 가지 관점에서 나누어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들이 성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노인 자신들이 노인의 성의 문제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노인들이 성생활에 접근하는데 가장 일차적인 장애요인은 성행위 상대자의 부재이다. 따라서 홀로된 노인들이 성생활 상대자를 만날 수 있도록 노인복지제도의 프로그램의 운용을 통해서 이성교제의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줄 것을 제안하고 있다. 사회복지관 등의 여러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홀로된 노인들이 자연스럽게 이성과 만나고 친밀하게 사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서 새로운 배우자를 만나서 노후 내지 황혼재혼까지 이르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제

안하고 있다.⁷⁹⁾ 하지만 자연스러운 이성교제에서 시작해서 결혼까지 이르는 것은 쉽지 않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황혼 재혼을 어렵게 하는 여러 요인이 있고, 이런 요인들을 극복해야 결혼에까지 이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노인복지 종사자들의 도움이 요청된다. 먼저 복지 시설 종사자들이 노인들의 성의 중요성과 이성과의 만남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이런 만남에 대한 욕구를 존중해서 바람직한 이성교제를 할 수 있도록 돕고, 또한 노혼 혹은 재혼을 위한 조언을 해주는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⁸⁰⁾

하지만 이성교제에서 시작해서 황혼재혼에 도달하는 것이 여의치 않은 것이 현실임을 감안하여, 노인들이 이성교제의 단계 그 자체에서 성생활을 향유할 수 있게 하거나, 황혼동거를 사회적으로, 가족적으로 용인하자는 제안도 적지 않게 제시되고 있다.⁸¹⁾ 심지어는 현재와 같은 음성적인 성매매가 아니라, 보건위생적으로 관리된 합법적인 성매매를 허용해서라도 정상적인 성관계 대상자가 없는 노인들의 성적 욕구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을 명시적으로, 혹은 암시적으로 하고 있다.⁸²⁾ 아울러서 노인입소시설에서 노인들이 이성교제를 하고, 부부관계가 아니라고 해도 원한다면 성생활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시설의 측면에서 뒷받침해줘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또한 노인들의 원활한 성생활을 위한 신체적 측면에서도 도움을 주어

79) 나임순, 「고령화 사회의 노인 성문제와 대안에 관한 연구」, 136; 원대호, 「홀로된 노인의 이성교제 및 성생활인식과 주관적 안녕감과의 관계」(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72f.; 이연자, 「고령화 사회 노인의 성적 권리에 관한 연구」(세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54.

80) 원대호, 앞의 글, 73.

81) 김기영, 앞의 책, 202, 206.

82) 위의 책, 111.

야 한다고 주장되고 있다. 노인들에게 정기건강검진의 기회를 제공하면서, 노인들의 성기능 검사를 마련하여 필요시에는 성기능 장애의 치료를 제공하지는 것이다. 아울러서 원활한 성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약이나, 성욕을 부분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자위기구용품 등과 같은 성 관련용품 등에 대해서도 노인들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하기도 한다.⁸³⁾

이런 노인의 성에 대한 복지적인 접근은 대개 노인의 성욕구에 대한 직접적인 해소에 방향성이 맞추어져 있다. 다시 말해서 생식기 중심의 성행위를 통한 성욕구의 직접적인 해소에 방향이 많이 맞추어져 있다. 성에 대한 포괄적 관심과 표현, 혹은 성행위가 아닌 다른 활동을 통한 성욕구의 간접적 해소 내지 승화의 방법(예를 들어서 운동, 봉사, 종교적 활동)은 과소평가되는 경향이 있다. 이성교제를 통해서 성행위를 함께 하는 만남에까지 이르지 못했더라도, 그 과정 속에서 여러 다양한 활동으로 성욕구가 간접적으로 충족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⁸⁴⁾ 성욕구는 직접적인 성욕구의 해소로만 풀어야 한다는 것은 인간의 욕구에 대한 너무나도 표면적이고 단순한 이해이다. 성욕구의 간접적 해소 내지 승화를 무조건 성의 억압으로 이해하는 경향은 문제성이 있다. 여기에는 성욕구의 분출과 성적 쾌락에 대한 추구는 어떤 제약도 받지 않아야 한다는 쾌락주의적 성도덕이 근저에 깔려있다고 판단된다.

둘째는 노인의 성에 대한 인지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노인복지학은 한결같이 제언하고 있다. 노인의 성에 대한 인지적 변화는 두 가지 측면에

83) 김승국, 「노인들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성 생활에 관한 연구」(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56.

84) 이호선, 앞의 책, 143: “실제 노년기 이성과의 사귀는 실제적인 성적 교합에 이르지 않더라도 몇 가지 차원에서 심리적 만족감을 경험하게 된다. • 신체(손, 어깨, 팔짱) 접촉을 통해 느끼는 촉감의 교화 • 대화를 통해 느껴지는 인간애와 정서적 교감 • 동년의 식 안에서 나누는 솔직한 대화 • 이성과 같은 공간 안에 있다는 편안함과 위로감.”

서 요구되고 있다. 하나는 노인의 성에 대한 노인 자신의 인지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노인을 위한 성교육 및 상담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성교육을 통해서 노인 스스로 노인의 성에 대한 보다 정확한 생리적, 심리적 지식을 가져야 행복하고 원활한 성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노년기의 신체적 변화와 성기능의 변화, 성기능 장애와 올바른 치료 및 대처 방법, 건강상태에 적합한 성행위의 유형, 성병의 위험과 치료, 잘못된 성기능 강화방법이나 성기능강화 내지 치료 약품의 오용에 대한 교정, 적절한 성생활과 건강증진의 상관성 등과 같은 노인의 성에 대한 의학적, 과학적 정보를 제공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⁸⁵⁾ 젊은 사람들에 비해서 교육의 기회를 적게 가졌던 노인들에게 이런 정보제공은 꼭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노인의 성에 대한 이런 의학적, 생리적 지식뿐만 아니라, 심리적, 사회적(배우자간의 사회적, 인격적) 인식의 교정을 도와주는 성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되고 있다. 이런 인식의 교정은 두 가지 영역으로 나뉜다. 하나는 노인의 성에 대한 노인의 인식의 교정이고, 다른 하나는 노인의 성에 대한 사회의 인식의 교정이다.

먼저 노인들이 노인의 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사회적 억압으로부터 벗어나서, 스스로 노인의 성을 긍정하도록 교육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인 스스로 자신의 성욕구를 부끄럽고 나쁜 것으로 여기면서, 스스로 자신의 성을 억압하는, 성에 대한 부정적 사고와 태도에서 벗어나도록 해주자는 것이다. 젊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노인들의 성도 아름다우며, 추구할 가치가 있으며, 추구할 권리가 있다는 인식을 노인 스스로 가지게 하자는 것이다.⁸⁶⁾ 이런 인식의 전환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하지만 노인들의

85) 위의 책, 145.

86) 이연자, 앞의 글, 21f.

성에 대한 태도가 개방적이 될 수 있도록 교육을 해줘야 한다고 까지 주장하는 것은⁸⁷⁾ 문제라고 본다. 성의 표현에는 아무런 제재나 통제가 필요 없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서 성행위는 상대방과 더불어서 함께 하는 사회적 행위이기에, 상대방을 배려하는 성행위야야 원만하고 행복한 성생활이 가능하다는 인식이 성교육을 통해서 노인들에게 인지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별히 성행위가 상호적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할 때에 성갈등이 유발되고, 심할 경우에는 부부관계의 위기까지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남성(노인)은 대체로 직접적인 성교만이 성행위의 전부라고 생각하며 거기에서 성적 만족감을 가지려고 하는 반면에, 여성(노인)은 때로는 직접적인 성교보다도 성관계를 통해서, 또는 성관계 이전에 가지는 정서적 친밀감, 교감이 성행위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며 거기에서 성적 만족감을 가진다는 점을 남성 노인이나 여성 노인 모두 인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별히 전통적인 가부장적 사회 속에서, 더구나 경제적 지배력을 가지고, 신체적 강함을 가지고 있던 남성노인은 — 이전의 부부시절에서부터 그렇게 해왔던 것처럼 — 여성배우자에게 일방적, 지배적 성관계를 이끌어 가려고 할 때, 부부 상호간에 성적 만족감은 주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성갈등을 통해서 부부관계를 어렵게도 만들 수 있다는 점이 성교육을 통해서 인지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⁸⁸⁾ 성의 문제와 관련하여 자기중심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서 서로를 살피고 배려하는 노력이 오랫동안 함께 살아온

87) 최생용, 「노인의 이성교제·성이 고독감과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백석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104; 김보미, 「노인의 성태도가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78.

88) 성생활 욕구, 성생활 태도, 성생활 중요도에서 남성보다 여성이 아주 소극적이고 낮게 나오는 이유는 “우리 사회가 과거 남성은 강한 성충동으로 공격적인 성 형태를 취하게 하고, 여성은 경제적 종속과 더불어서 성의 종속상태에서 성적 자율권을 상실한 채 수동적인 성 형태를 취하는 것을 정상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성역할 모델로 사회화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고 분석하기도 한다. 심창교, 앞의 글, 150

노부부에게도 새롭게 인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⁸⁹⁾

그리고 다른 하나는 노인의 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⁹⁰⁾ 노인들이 여전히 성욕구를 가지고 있고, 또한 성기능도 가지고 있어도 — 젊은 시절에 비하면 약화되었지만 — 사회적 편견 속에서 노인 스스로 성욕구를 부정하게 만들고, 노인들의 성적 욕구의 표현이나 성적 표현이 비정상적인 것으로 간주되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노인의 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하지 않으면, 노인들의 성문화는 음성적으로 발전하면서 노인들 자신의 삶과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성매매나 성범죄와 같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⁹¹⁾ 그런 점에서 노인의 성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을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다. 성의 문제는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문화적 문제이며, 따라서 노인만 변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인지해야 노인의 성문제에 대해서 바르게 접근할 수 있다. 따라서 젊은 육체의 성만이 아름답고 누릴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늙은 육체의 성도 아름답고 누릴 권리가 있음을 사회가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 노인들이 떳떳하게 성을 누릴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이런 생각에는 노인의 성욕구가, 특별히 여성 노인의 성욕구가 사회적 편견과 관습에 의해서 억압되면서, 결과적으로 본의와 상반되게 성을 포기하고 살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노인들이 자연스럽게 성적 욕구를 표현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자는 것이다.

노인의 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요청되는 것은 가족들, 특히 자녀들의 인식의 변화라고 지적된다.⁹²⁾ 노인이 적극적

89) 김기영, 앞의 책, 182.

90) 김혜선, 「노년기 유배우자의 성생활 인식, 성생활 실태와 부부 관계와의 관계성 연구」, 333; 나임순, 「노인의 성대처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회, 『한국노년학』, 2006, Vol. 26 No. 3, 559.

91) 조임현, 앞의 글, 26.

92) 오진주, 「노인의 성생활 경험에 대한 서술적 연구」, 246.

인 성생활을 하려고 하다가도 '자식들의 눈치'를 보고서 포기하는 경우가 - 황혼재혼의 낮은 성공률 등에서 보듯이 - 많기 때문이다. 가장 가까운 사회적 관계에 있는 자식들이 노인의 성생활을 인정해주지도 않고 지지해주지 않는 상황에서는 노인의 성 문제의 해결은 요원하다. 그런 점에서 노인의 성에 대한 이해와 교육이 노인이 아닌 일반인들, 젊은 사람들에게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런 주장은 타당하다고 본다.

노인의 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사회문화적으로 가장 영향력 있게 선도하고 있는 것은 대중매체이기에, 대중매체 등에서 노인의 성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표현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⁹³⁾ 2002년 개봉되었던 영화 「죽어도 좋아」는 70대 노인들의 사랑과 성이라는 파격적인 주제를 다루었는데, 이 영화에서 외모로는 노쇠하게 보이는 노인들이지만 열정적인 성생활을 통해서 삶의 활력과 기쁨을 되찾아 새로운 삶을 찾아가는 장면이 묘사되고 있다. 이후 노인의 성과 성심리 등을 다루는 영화들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도 일반인들에게는 낯설게 여겨지고 있다. 따라서 대중매체들이 노인의 성을 좀 더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다루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묘사되는 노인의 상이 가난하고, 아프고, 고독하고, 수동적으로만 살아가는, 아니 죽어가는 노인(만)이 아니라, 늙었지만 아직도 활기차고, 그래서 성적으로 활달하게 살아가는, 아니 아직 살아있는 노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중매체를 통해서 노인의 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93) 참고, 이호선, 앞의 책, 145-148.

V. 노인복지학적 노인의 성담론에 대한 윤리적 고찰

1. 자유주의 성윤리로 경도된 노인복지학적 노인의 성담론

현대 한국 사회에서 노인의 성에 대한 담론을 주도하고 있으며, 또한 복지정책에서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노인복지학적 성담론이 과연 인간의 성에 대한 올바른 윤리적 기반 위에서 있는지를 고찰하는 것은 불가피한 과제가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노년의 성에 대한 사회복지학적, 노인복지학적 분석과 제안이 어떤 윤리적 기초 위에 있는지, 어떤 성윤리를 전제하고 지향하고 있는지를 비판적으로 성찰하고자 한다. 이런 비판적 성찰을 위해서 일반적인 성담론의 지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기에, 이를 먼저 소개하고자 한다. 성담론 내지 성윤리는 크게는 두 부류로 분류되는데, 그것은 곧 보수주의 성윤리와 자유주의 성윤리이다. 하지만 이것은 다시 온건한 입장과 극단적 입장으로 나뉜다. 그렇게 되면 성윤리는 극단적 보수주의, 온건한 보수주의, 온건한 자유주의, 극단적 자유주의로 나뉜다.⁹⁴⁾

보수주의 성윤리는 결혼과 출산을 도덕적인 성의 기준으로 제시한다. 결혼 및 출산과 관련성을 가질 때에만 성이 도덕적으로 허용된다. 온건한 보수주의적 입장에서는 혼인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을 정당하다고 보기에, 일반적으로 혼전 성이나 혼외 성은 도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대체로 개신교의 성윤리가 여기에 속한다. 하지만 서약과 결혼으로 나아가는 혼전 성은 용인되어야 한다는 입장도 있다. 이에 비해서 극단적 보수주의적 입장에서는 혼인의 범위 안에서라고 해도 오직 출산을 의도하는 성만이 정당하다고 보기에, 부부 사이의 성관계라고 하더라도 쾌락과 사랑의 표현으로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도덕적으로 정당화되지 않는다.

94) 류지한, 『성윤리』(서울: 울력, 2002), 52-69.

아퀴나스의 자연법적 이해에 기반한 가톨릭 성윤리가 여기에 속한다.⁹⁵⁾ 이런 보수주의적 입장은 성행위의 결과로서의 출산에 대한 책임성과 성의 사회적 안전성을 중시한다고 평가된다. 하지만 현대의 의료기술의 발달로 -완전하지는 않지만 - 효과적인 피임 수단이 생기면서, 성과 생식의 분리가 가능해지자, 성을 결혼과 출산에 묶어두려는 보수주의 성윤리는 성의 자유에 대한 억압으로 여겨졌다.

자유주의 성윤리는 쾌락을 성의 중심 가치로 간주하면서, 성적 쾌락은 다른 무엇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가 추구의 목적이라고 여긴다. 그러기에 성을 다른 무엇과의 연관성(과 그 연관성에 의한 억압)으로부터 자유롭게, 해방시켜주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성적 쾌락의 추구는 그 자체로 좋은 것이기에, 성행위가 - 밀의 자유의 원리에 따라서 - 타인에게 해악을 주지 않는 해악 금지의 원리와 타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자율성 존중의 원리를 따르기만 하면 도덕성을 부여받는다라는 것이다. 해악 금지의 원리와 자율성 존중의 원리에서 개인적 자유의 추구가 침해당하기 쉬운 취약자, 예컨대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는 옳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하지만 이 자유의 원리에 의한 성적 쾌락 추구의 제약에 대한 해석과 적용이 유동적이기에, 온건한 입장과 극단적 입장으로 나뉜다. 온전한 자유주의 입장에서 자유주의 원리를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책임과 존중”의 원리에서,⁹⁶⁾ 취약자에 대한 “각별한 존중과 배려”의 원리에서,⁹⁷⁾ 더 나아가서는 “사랑”의 전제에서⁹⁸⁾ 성적 쾌락이 추구되면 성이 도덕적 정당성을

95) 참조. 김희수, 「동성애에 대한 윤리적 고찰: 동성애는 죄인가?」, 한국기독교사회윤리학회, 『기독교사회윤리』, 2007, 제13집, 126f.

96) 위의 책, 71ff.

97) 김은희, 「섹슈얼리티 개념 분석과 성윤리의 정립」, 철학연구회, 『철학연구』, 2010, 89권, 123.

98) 존 헌터(J. Hunter)와 로저 스크루턴(R. Scruton) 등이 ‘사랑이 있는 성’(Sex with Love)에 대한 입장을 대변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참고. 류지한, 앞의 책, 66f. 로저 스크루턴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적 윤리의 관점에서, “성적 통합성”(sexual integrity)을 위한

확보할 수 있다고 본다. 결혼과 출산은 더 이상 성행위의 전제조건이나 목적이 되지 않는다. 극단적 자유주의의 입장에서는 성이 스포츠와 마찬가지로 쾌락을 추구하는 하나의 활동이기에, 특별한 '성윤리'가 있을 수 없다고 여기면서 도덕이 최소화되거나 혹은 탈락되면서 어떤 제약도 거부된다. 결혼도, 사랑도⁹⁹⁾ 그 무엇도 성의 제약조건이 될 수 없다. 즉 성 윤리는 성욕구의 충족으로 환원된다. 성행위를 인간의 삶의 그 어떤 맥락으로부터도 분리시키고, 성행위 내지 성욕구 그 자체만을 관찰과 관심의 대상으로 삼는 알프레드 킨제이(Alfred Kinsey)¹⁰⁰⁾와 알란 골드만(Alan Goldman)¹⁰¹⁾의 쾌락주의적 성담론이 여기에 속한다.

이와 같이 현대에 논의되고 있는 성담론의 유형들과의 연관성 속에서

덕으로서 사랑을 성과 연관시킨다는 점에서(Scruton, Roger, *Sexual Morality*, in: Olen, Jeffrey & Barry, Vincent, *Applying Ethics. A Text with Readings*, Belmont, CA: Albany, NY etc, Wadsworth Publishing Company: 1999, 90) 엄격한 의미에서 자유주의적 성윤리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결혼이나 출산을 도덕적 성의 기준으로 제시하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자유주의적 성윤리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참조: 윤영돈, 「칸트의 여성관과 성담론」, 한국윤리교육학회, 『윤리교육연구』, 2012, 제28집, 200.

99) 황경식, 「성윤리·성철학·성교육」, 『현대사회와 성윤리』(서울: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 1997), 52. 황경식은 여기서 성윤리를 2부류로 나누면서, 보수주의 성윤리가 '사랑이 있는 성'의 입장을 대변하고, 자유주의 성윤리가 '사랑이 없는 성'을 대변한다고 말한다. 황경식에게서 '사랑이 있는 성'은 결혼 관계 안에서의 성을 의미하기에, 보수주의의 입장으로 이해되고 있다.

100) 킨제이의 성담론은 일명 '킨제이 보고서'로 불린다. 동물학 교수였던 킨제이는 인간의 성에 대한 과학적 정보가 별로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 남성 5,300명, 여성 5,940명에 대한 집약적 인터뷰와 설문문을 통해서 얻은 결과들을 토대로 1948년에 『인간 남성의 성행동』(*Sexual Behavior in Human Male*)을 발간하고, 1953년에는 『인간 여성의 성행동』(*Sexual Behavior in Human Female*)을 발간했는데, 이 두 권의 책을 '킨제이 보고서'라고 부른다. 『인간 남성의 성행동』이 처음 출판 되었을 때 엄청난 화제를 불러 일으켰지만, 또한 이미 수많은 비판에 직면했다. 하지만 『인간 여성의 성행동』이 출판되었을 때도 큰 관심을 불러 일으켰지만, 이전보다는 호의적인 반응을 받았다고 한다. 참고: Gathome-Hardy, Jonathan, *Alfred C. Kinsey*, 김승욱 역, 『킨제이와 20세기 성연구』(서울: 작가정신, 2010), 319, 437.

101) Goldman, Alan, *Plain Sex, Philosophy and Public Affairs*, vol. 6, no. 3, 1997, 268(김은희, 앞의 글, 102 재인용).

최근 사회복지학과 노인복지학의 노인의 성담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현재 한국의 사회복지학과 노인복지학에서 주도되고 있는 노인의 성담론은 대체로 자유주의 성윤리의 방향으로 기울어 있으며, 심지어 극단적 자유주의 성윤리 입장도 허용하려는 움직임도 보인다. 사회복지분야의 노인 성담론에서 보이는 자유주의적 경도성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나타난다.

노인복지의 관점에서 노인의 성과 성욕구는 통제적 태도를 벗어나서 개방적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을 전제하고 있다. 노인들이 성욕구를 가지고 있지만, 이런 저런 이유로 다 표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부정적인 상황으로 평가한다. 심지어 원래 가졌어야 할 성욕구마저도 통제와 억압의 태도로 인해서 약화되고 있으니, 그것을 다시 살리도록 도와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통제(혹은 억압)으로 인해서 약화된 성욕구와 성행위의 '비정상성'은 통제치의 정상성의 기준에 따라서 평가되면서, 정상성에 도달하도록 성교육과 성상담 등의 조치를 통해서 고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노인의 성욕구는 어떻게든 해소되어야 하며, 그것도 가급적 직접적인 성행위를 통해서 해소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성욕은 성적 쾌락을 향한 욕구이며, 다른 방식으로 도출될 수 있는 감각을 향한 욕구가 아니다”¹⁰²⁾는 골드만의 자유주의적, 쾌락 중심의 성이해가 전제되어 있다. 따라서 배우자가 없는 노인의 경우에 황혼 재혼을 권하며, 또 거기에 이르도록 돕는 길을 모색하면서도, 결혼에 구애받지 않는 성관계, 예를 들어서 동거나 이성교제를 통한 성관계도 권한다. 심지어 성매매금지법이 노인의 성생활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평가하거나, 노인들의 성욕구 해소에 대한 사회적 방법에 대한 포괄적이고 모호한 언급을

102) 김은희, 앞의 글, 106.

통해서 노인들에게 성매매를 사회적으로 용인해줄 것을 넌지시 제안하고 있다.

또한 생식기 중심의 성행위에 대한 이해가 주도적이라는 점에서도 킨제이의 성이해로 경도되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생식기에 의한 성교로 성행위를 한정시키고 있는 연구방향에 대한 자기반성 속에서, 다양한 성행위의 유형에 대한 분석과 조사, 그리고 정서적 친밀감과의 연관성 속에서 성행위에 대한 분석의 필요성이 지적되고 시도되고 있기도 하지만, 그런 흐름이 아직 노인의 성담론에서 지배적이지는 않다. 여전히 노인의 성욕구와 성행위 자체를 독립적으로 다루고 있고, 그와 연관된 대책에 대한 제안들이 주류를 이룬다.

특별히 노인의 성에 대한 사회복지적 연구가 그 출발점을 한결같이 킨제이의 연구가설에서 시작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되어야 한다.¹⁰³⁾ 킨제이의 성담론이 라이히의 '성혁명'과 함께, 인간의 성욕구를 지나치게 억압하던 전통주의적 성윤리로부터 인간을 자유롭게 해주면서, 성이나 성욕구 자체를 악한 것이나 비도덕적인 것으로 보는 관점을 넘어서도록 하는 일에는 기여했다. 노인의 성에 대한 재발견의 통찰이 킨제이의 연구에 빛을 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킨제이의 자유주의적 성담론에 대한 비판이 다각도로 논의되고 있음이 사회복지분야의 노인 성담론에서는 제대로 의식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킨제이의 성담론이 가지는 문제점과 관련해서 여기서는 두 가지만 언급하고자 한다. 첫째, 인간의 성을 철저히 동물적 관점에서 관찰했다고 하는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킨제이 보고서'에 이미 특정한 성담론, 즉 자

103) 참고. 조임현, 앞의 글, 2; 오진주, 「노인의 성생활 경험에 대한 서술적 연구」, 236; 나임순, 「노인의 성대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548; 나임순, 「고령화 사회의 노인 성문제와 대안에 관한 연구」, 127; 심창교, 앞의 글, 147; 이승재, 이연숙, 김양이, 앞의 글, 2 등.

유주의 성해방론이 몰래 숨어들어가 있다는 점이다. 실증적 관찰로부터 당위적 요구를, 존재에서 당위를 연역하는 자연주의적 오류가 숨어있다. 통계적 다수가 도덕적 다수 개념과 규범으로 탈바꿈되며, 동물의 행동이 자연적·도덕적 규범으로 등극한다.¹⁰⁴⁾ 둘째, 킨제의 자유주의 성해방론은 인간의 성을 해방시킨다는 명목하에 인간의 성이 연관되어 있는 모든 맥락으로부터 인간의 성을 유리시켜서 오히려 인간의 성 이하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다.¹⁰⁵⁾ 인간의 성을 동물적, 성기적, 생리적인 것으로 환원시키고, 인간의 심리, 가치, 종교 등으로부터 절연시켜 버렸다. 그런 성은 인간의 통합적 인격, 다른 인간 존재와의 관계, 그리고 사회와 그 역사로부터 유리되어서, 오히려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생식기 능력으로 오르가즘만을 추구하는 것으로 간주되면서 인간에게 상처와 회환과 환멸을 가져다줄 뿐이다. 그러기에 이처럼 평가절하된 성을 다시 구출하기 위해서는 “성의 재맥락화”가 시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옳은 지적이다.¹⁰⁶⁾

2. 자유주의적 성윤리에 대한 기독교 윤리적 비판

인간의 성을 모든 맥락으로부터 절연시켜서 다루려고 하는 자유주의적 성윤리에 대해서 기독교적 성윤리 역시 반대한다. 기독교 윤리는 현대의 자유주의적 탈맥락적 성윤리와 달리,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맥락 안에서, 즉 인간의 전체적 본성의 맥락과 이웃 및 하나님과 맺는 인격적 관계성의

104) 김미영, 「자유주의의 성 해방론의 의미와 비판」, 『현대사회와 섹슈얼리티』(서울: 고려대학교출판부, 2009), 157f.

105) 위의 글, 155.

106) 위의 글, 167-175. 김미영은 덕윤리적 입장에서 인간의 성을 “인간의 통합된 인격” 속에, 다른 주체적 인간과의 “관계” 속에, 그리고 “역사” 속에서 재맥락화시킬 것을 제안한다.

맥락에서 인간의 성을 이해해야 할 것을 주장한다.¹⁰⁷⁾ 첫째, 인간의 성은 인간을 몸과 영혼의 연합체로 보는 인간의 전체적 본성의 맥락에서 파악해야 한다. 따라서 인간의 성은 단지 신체만의 사안, 생리적 사안, 생식기의 사안만이 아니라, 심리적이고 정신적이고 영적인 사안이기도 하다. 인간의 성은 인간의 전인성과 관련된다. 둘째, 인간의 성은 인간이 그의 이웃 및 하나님과 맺는 인격적 관계성의 맥락에서 파악되어야 한다. 인간의 성은 성교에 참여하는 두 사람을 “한 몸”(창 2:18)되게 한다. 성은 남성과 여성의 공동체적 결속을 향한 충동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다. 성에 의해서 지향되는 공동체적 결속은 한 남성과 한 여성 사이의 공동체성의 형성에만 관여하지 않고, 보편적인 인류공동체의 형성을 지향하며, 또한 하나님의 삼위일체적 공동체성을 창조론적으로, 그리고 구원론적으로도 반영하며 지향한다.¹⁰⁸⁾

인간의 성이 이 두 가지 맥락 안에 놓여 있음을 제도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것이 결혼이다. 성과 결혼의 연관성에 대해서 언급하기 전에, 성행위에 대한 기독교적 이해를 다시 한 번 언급할 필요가 있다. 개신교 윤리학에서는 대체로 성행위에 이중적 의미를 부여한다. 그 하나는 임신과 출산이라는 생식적 의미이며, 다른 하나는 두 사람의 “한 몸” 됨(“독처”하는 것의 극복)이라는 친교적 의미이다. 하지만 여기서 우선시 되는 것은 친교적 의미이며, 거기에 결과로서 동반되는 것이 생식적 의미이다. 그리고 성교를 통한 친교와 교제에는 축제의 즐거움과 쾌락이 정당하게 수반

107) Gardner, E. Clinton, *Biblical Faith and Social Ethics*, 이희숙 역, 『성서적 신앙과 사회윤리』(서울: 종로서적, 1995), 271.

108) 스텐리 그렌즈는 이런 의미에서 성과 결혼을 창조 질서이자 동시에 구원 질서라고 규정한다. 인간의 성이 가지는 구원론적 의미는 그에게 의하면 다음과 같다. 인간의 타락으로 성도 역시 죄의 타락에 노출되어 공동체 형성의 왜곡을 가져오기는 했지만, 성은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참고. Grenz, Stanley J., *Sexual Ethics: An Evangelical Perspective*, 남정우 역, 『성윤리학. 기독교적 관점』(서울: 살림, 2003), 12, 32, 106, 138.

되며, 그 즐거움과 쾌락은 노년에까지 향유될 수 있으며, 또 그럴 가치가 있다.¹⁰⁹⁾ 이런 점에서 인간의 성이 가지는 의미와 목적을 생식에만 두는 가톨릭의 윤리와는 차이점을 드러낸다.

이러한 인간의 성행위는 결혼이라는 상황 안에서만 본래적 의미를 성취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결혼은 남녀 사이의 성관계가 가장 잘 성취될 수 있는 제도적 구조이다.¹¹⁰⁾ 성교를 통해서 일어나는 두 사람 사이의 연합 내지 결속이, 두 사람 사이의 영속적, 배타적 결속에 대한 개인적, 공적 약속으로서의 결혼 안에서 가장 안전하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결혼만이 성적 존재인 인간이 자신의 성적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독신도 인간의 성적 표현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독신의 상태에서는 성교행위가 영속적인 결속과 연합을 성취할 수 없기에 스스로의 모순에 빠진다. 따라서 성교행위에 관한한 독신에서는 금욕이 요구된다. 하지만 그것이 곧 독신자에게서 성의 무의미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성의 원래적 의도인 공동체적 결속이 결혼 안에서의 성행위와는 다른 양식의 성적 표현들로 나타날 수 있다. 결혼 안에서의 성행위에 요청되는 배타적인 결속 대신에, 성적 욕구의 승화를 통해서 독신자는 많은 사람들과의 우정, 보편적인 사귄과 교제, 타인을 위한 사회적 봉사 등을 통해서 개방적 결속을 이루며,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비배타성과 보편성을 표출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¹¹¹⁾ 또한 독신은 하나님과 교회공동체를 위한 충성과 헌신의 희생의 행위로서 결혼과 달리 고유한 가치를 가진다.¹¹²⁾ 이런 점에서 독신자도 성적 실존으로서 그런 '성생활'을

109) Grenz, Stanley J., 앞의 책, 155, 164.

110) Gardner, E. Clinton, 앞의 책, 275.

111) Grenz, Stanley J., 앞의 책, 374.

112) Hauerwas, Stanley, *Community of Character*, 문시영 역, 『교회됨』(서울: 복코리아, 2010), 360: "독신자의 '희생'은 '성의 포기'가 아니라, 재산상속의 포기라고 하는 훨씬 더 중요한 희생이다. 말하자면, 독신으로 헌신한다는 것은 가장 근본적인 행위를 선택한

통해서 - 굳이 성교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도 - 성적 존재로서의 자기실현과 만족감에 도달 할 수 있다. 따라서 노인의 독신 생활은 - 비록 비자발적으로 독신의 상황으로 들어오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 불완전하고 비정상적이라고 볼 수 없으며, 오히려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삶에 대한 성취가 가능하다는 점이 노인의 성에 대한 담론에서 기억되어야 한다.

VI. 노년의 성담론에 대한 기독교 윤리적 평가와 제언

기독교 윤리적 관점에서 오늘날 한국에서 이루어지는 노년의 성담론, 특히 노인복지적 관점에서 이루어진 노년의 성담론에 대해서 평가하고, 제언하면서 이 글을 맺고자 한다.

첫째, 최근의 노년의 성담론을 통해서 노인에게서의 성의 중요성을 일깨워준 것은 옳은 일이라고 본다. 인간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성적 존재이다. 노인이 된다고 해서 인간의 성적 실존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다. 생식적 능력이 없어졌다고 해서 인간에게서 성의 의미와 가치가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성교를 통한 교제와 결속에 대한 욕구 및 이에 수반되는 성적 쾌락은 노인에게서도 추구될 수 있으며, 추구되어도 된다. 아니 건강이 허락하는 한까지 성교를 통한 공동체적 결속은 결혼 관계의 범위 안에서 추구되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가톨릭의 입장과 달리 개신교의 성윤리에서는 노인에게서의 성행위와 성생활은 긍정적으로 수용될 수 있다. 아울러서 교회가 인간의 성행위와 성욕구 자체를 죄악시하고 억압하는 잘못된 성윤리의 관행을 시정하고, 올바른 성윤리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에 나서는 것이 필요하다. 교회의 노인대학 등의 공간을 통해서 교회

것이다. 독신 성직자의 경우, 그의 미래가 가정에 의해 보증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그의 삶을 보증해 준다는 점을 보여주는 제도적 표현이다.”

도 교회 안팎에서 노인의 성에 대한 교육과 상담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둘째, 노년의 성담론이 자유주의적 성윤리 내지는 쾌락중심적 성윤리로 경도되는 경향성에 대해서는 경계해야 한다. 노인들의 성이 청년이나 장년의 성에 비해서는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불리한 여건에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런 불리함을 호소하면서, 성적으로 취약한 노인들을 도와야 한다는 취지에서, 성을 인간(노인)의 삶의 다양한 맥락으로부터 분리해서 생물적 차원에서 관찰하다보니 자유주의적, 쾌락중심적 성윤리로 경도된 경향이 있다고 판단된다. 청소년과 달리, 청장년과 달리 노인에게만 호의적으로, 느슨하게 적용되어야 할 특수한 성윤리가 있을 수는 없다. 여생이 얼마 남지 않고, 곧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는 인간의 실존에 대한 동정과 연민 속에서 다른 윤리적 규범을 가져올 수는 없는 법이다. 그렇게 하다가는 오히려 노인의 통전적 인격성에 대한 멸시가 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노년의 성에 대한 이해를 지나치게 성적 욕구와 관련된 쾌락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거나, 이를 위한 방편으로 결혼관계 밖에서의 성적 관계를 허용하거나 조장하려고 하는 움직임은 지양되어야 한다.

셋째, 노인복지적 관점에서의 노년의 성담론에서도 간간히 지적되고 있듯이 자유주의적, 쾌락중심적 성이해를 넘어서는 통전적 성이해가 노년의 성과 관련해서도 활발히 일어나야 할 것이다. 생식기만의 성행위라는 성이해에서 벗어나서, 신체와 정신의 통합적 인격으로서의 인간의 성행위에 대한 이해가 강조되어야 한다. 생식기의 삽입에 의한 성교를 넘어서서, 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한 몸을 이루는 일체감과 공동체적 연합의 성취감과 같은 정서적 친밀성이 성행위에서 가지는 의미가 특별히 남성 노인에게서 주지되게 해야 한다. 아울러서 가부장적 권력에 기반한 남성 노인의 여성 노인에 대한 성적 지배로 유발되는 노년부부의 성갈등이나,

그런 갈등의 여파와 관련이 있는 여성 노인의 성욕구 저하는 인간의 성을 인간 대 인간의 관계성의 맥락으로부터 이탈시키고, 생물적, 동물적 관계로만 관찰할 때는 쉽게 인식되지 않는 문제점일 것이다. 성에 대한 통전적 이해는 남성 노인의 일방적인 가부장주의적 성의식과 관행을 교정함에 있어서 필수적이라고 평가된다.

넷째, 성적 존재로서의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성생활의 다양성과 성적 표현의 다양성이 노년의 성담론에서도 간과되지 말아야 한다. 결혼도 인간의 성생활의 하나이며, 독신도 인간의 성생활의 다른 하나이며, 각각 독특한 의미를 가진다. 무배우자 노인이 다시 새로운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을 해서, 결혼생활을 하는 것도 좋은 삶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모두가 그렇게 할 수는 없다. 아니, 그렇게 하지 않아도 좋은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것이 노인의 성생활과 관련해서도 말해져야 한다. 무배우자 노인들이 자발적 독신을 택한 것은 아니지만, 독신의 상태에서도 인간의 다양한 성적 표현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서 만족감을 누릴 수도 있다는 것이 인식되게 하고, 또 그런 여건을 마련해주는 것도 필요하다. “성교가 독신자들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아니다. 최우선을 차지하는 것은 밀접한 인간관계에 대한 굶주림이다”고 지적한 것처럼,¹¹³⁾ 친교, 예술, 신앙생활, 사회봉사, 취미, 운동과 같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성적 존재로서의 노인의 삶이 만족감을 누릴 수 있다는 점이 주지되어야 한다. 이런 활동성을 갖지 못하는 노인들에게도 이와 유사한 기회가 사회복지를 통해서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노인이 노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노인도 성적 존재로서의 인간이라는 사실이 부정되어서는 안 된다. 노인의 성도 인정되고 긍정되어야 하며, 적

113) Smedes, Lewis B. *Caring and Commitment* (San Francisco: Harper and Row, 1988),

112(Grenz, Stanley J., 앞의 책, 376 재인용)

합한 상황 속에서 노인의 성적 표현이 다양하게 표출되고, 그 욕구가 충족되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노인의 성에 대한 인정과 긍정이 노인의 성을 과도하게 강조하는 것으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 즉 노인을 좁은 의미의 성적 존재로 몰아붙여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다가는 오히려 노인의 전인적 복지를 훼손할 수도 있다. 성행위와 같은 직접적인 성적 표현만이 성적 존재로서의 노인(인간)의 자기실현을 가능하게 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간접적이지만 다양하고 창조적인 성적 표현도 성적 존재로서의 노인(인간)의 자기실현을 더욱 풍성하게 해주어 통합적 인격으로서의 노인의 삶을 가능하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점이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참고문헌

- 강현숙. 『노년기 성에 관한 질적 연구. 무배우자 노인의 성욕구 실태와 해소유형을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 권오혁·허준수. 『노년기 부부의 결혼만족에 관한 연구』. 한국노인복지학회. 『노인복지연구』 통권 47호, 2010.
- 김기영. 『황혼의 남과 여, 사랑하고 또 사랑하라』. 서울: 상상나무, 2009.
- 김기현. 『고령화시대의 노인 범죄 실태분석을 통한 범죄예방에 관한 연구』. 한국교정학회. 『교정연구』 52호, 2011.
- 김미영. 『자유주의 성 해방론의 의미와 비판』. 『현대사회와 섹슈얼리티』. 서울: 고려대학교출판부, 2009.
- 김보미. 『노인의 성태도가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 김승국. 『노인들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성 생활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 김연순. 『생애사를 통해 본 여성노인의 섹슈얼리티』. 대한여성건강학회. 『여성건강』 제6권 2호, 2005.
- 김윤정·서선영. 『중노년기 부부간 romantic relationship』. 한국노년학회. 『한국노년학』 Vol. 25, No. 1, 2005.
- 김은희. 『섹슈얼리티 개념 분석과 성윤리의 정립』. 철학연구회. 『철학연구』 89권, 2010.
- 김혜선. 『노년기 유배우자의 성생활 인식, 성생활 실태와 부부 관계와의 상관성 연구』. 한국노인복지학회. 『노인복지연구』 통권 38호, 2007.
- 김혜선. 『중년 후기 남녀 유배우자의 부부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 성생활을 중심으로 -』. 한국노년학회. 『한국노년학』 Vol. 28, No. 1, 2008.
- 김희수. 『동성애에 대한 윤리적 고찰: 동성애는 죄인가?』. 한국기독교사회윤리학회. 『기독교사회윤리』 제13집, 2007.
- 나동석·김영대. 『노인의 성생활과 성태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인복지학회. 『노인복지연구』 통권 52호, 2011.
- 나임순. 『고령화 사회의 노인 성문제와 대안에 관한 연구』. 한국임상사회사업학회.

- 『임상사회사업연구』 Vol. 2, No. 1, 2005.
- 나임순. 「노인의 성대처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회. 『한국노년학』 Vol. 26, No. 3, 2006.
- 류지한. 『성윤리』. 서울: 울력, 2002.
- 심창교. 「노인 성 연구의 동향」. 한국임상사회사업학회. 『임상사회사업연구』 Vol. 2, No. 1, 2005.
- 왕행남. 「노년기 성실태에 관한 연구: 전주시 거주노인을 중심으로」. 한일장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 원대호. 「홀로된 노인의 이성교제 및 성생활인식과 주관적 안녕감과와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 유성호 외 3인. 『노인복지론』. 서울: 아시아미디어리서치, 2002.
- 유성호 · 강지현 · 홍미령. 『노년의 사랑과 성』. 서울: 미래를 위하여, 2003.
- 윤영돈. 「칸트의 여성관과 성담론」. 한국윤리교육학회. 『윤리교육연구』 제28집, 2012.
- 오진주. 「노인의 성생활 경험에 대한 서술적 연구」. 한국보건간호학회. 『한국보건간호학회지』 Vol. 12, No. 2, 1998.
- 오진주. 「무료 노인시설 성 보호 환경과 종사자들의 관련 태도 및 활동 정도」. 한국노년학회. 『한국노년학』 Vol. 22, No. 3, 2002.
- 이상훈. 「공공신학적 관점에서 본 교회개혁과 고령화사회」. 한국기독교사회윤리학회, 『기독교사회윤리』 제25집, 2013.
- 이승재 · 이연숙 · 김양이. 「노인의 성욕구 수준과 성에 대한 태도」. 한국임상사회사업학회. 『임상사회사업연구』 Vol. 10, No. 1, 2013.
- 이연자. 「고령화 사회 노인의 성적 권리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 이영균 · 성경원. 「노년기 성교육에 관한 실태분석」. 한국노인복지학회. 『노인복지연구』 통권 28, 2005.
- 이윤로 · 유시순. 「노인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임상사회사업학회. 『임상사회사업연구』 Vol. 1, No.1, 2004.
- 이호선. 『노인과 노화』. 서울: 시그마프레스, 2010.
- 이호선. 「노년기 성 갈등 유형의 상호학문간 연구 - 사회학적, 신학적, 목회상담학적 접근」.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 이호선. 「유배우자 여성 노인 성 갈등 유형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회. 『한국노년학』 Vol. 13, 2004.
- 이호선. 「유배우자 남성 노인 성 갈등 유형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연구회. 『한국노년학연구』 Vol. 13, 2004.
- 이혜자 · 김윤정. 「부부관계(사랑과 성)가 노년기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회. 『한국노년학』 Vol. 24, No. 4, 2004.
- 조임현. 「홀로된 남성노인의 성생활 만족을 위한 사회복지정책적 접근」.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사회복지정책』 Vol. 40, No. 1, 2013.
- 최생용. 「노인의 이성교제 · 성이 고독감과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백석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 최성재 · 장인협. 『노인복지학』.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987.
- 최은영. 「무배우자 노인의 성생활 인식과 성 욕구 대처행동」.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 최준. 「노인범죄의 동향과 교정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교정학회. 『교정연구』 58호, 2013.
- 한동효. 「고령화 사회의 노인범죄의 추이와 영향요인 연구」.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제12권 제2호, 2008.
- 황경식. 「성윤리 · 성철학 · 성교육」. 『현대사회와 성윤리』. 서울: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 1997.
- Butler, Robert N. & Lewis, Myrna I. *The New Love and Sex after 60*. 우행원 역. 『새로운 60세 이후의 성과 사랑』. 서울: 하나의학사, 2005.
- Gardner, E. Clinton. *Biblical Faith and Social Ethics*. 이희숙 역. 『성서적 신앙과 사회윤리』. 서울: 종로서적, 1995.
- Gathome-Hardy, Jonathan. *Alfred C. Kinsey*. 김승욱 역. 『킨제이와 20세기 성연구』. 서울: 작가정신, 2010.
- Grenz, Stanley J. *Sexual Ethics: An Evangelical Perspective*. 남정우 역. 『성윤리학 - 기독교적 관점』. 서울: 살림, 2003.
- Hauerwas, Stanley. *Community of Character*. 문시영 역. 『교회됨』. 서울: 북코리아, 2010.
- 小林 照幸. 『熟年性革命報告』. 송현아 역. 『노년의 성혁명』. 서울: 이지북, 2001.
- Benbow, Susan Mary & Beeston, Derek. *Sexuality, aging, and dementia*,

International Psychogeriatrics, 24:7, 2012.

Block, J. D. *Sex over 50*. New Jersey: Prentice Hall Press, 1999.

Goldman, Alan. Plain Sex. *Philosophy and Public Affairs* vol. 6, no. 3, 1997.

Scruton, Roger. Sexual Morality. Olen, Jeffrey & Barry, Vincent. *Applying Ethics. A Text with Readings*. Belmont, CA; Albany, NY etc, Wadsworth Publishing Company: 1999.

Smedes, Lewis B. *Caring and Commitment*. San Francisco: Harper and Row, 1988.

통계청. 『2013 고령자 통계』. 2013. 9. 30.

<http://www.helpage.org/global-agewatch/>

논문투고일: 2013. 10. 14.

심사개시일: 2013. 11. 13.

게재확정일: 2013. 12. 13.

• 국 문 초 록 •

현재 한국 사회에서 노인의 성에 대한 담론을 주도하는 것은 사회복지분야이다. 본 논문은 노인복지적 관점에서 논의되고 연구되었던 노인의 성에 대한 이해와 대응책들을 소개함으로써, 현대 한국 사회에서 진행되는 노인의 성담론의 주요 관심사들을 소개했다. 노인은 성욕구도 없고 성기능도 이미 쇠퇴했다는 노인의 성에 대한 사회적 편견은 노인의 성생활에 대한 실증적 연구에 의해서 깨어지기 시작했다. 노인의 성에 대한 생리적 접근, 심리적 접근, 사회적 접근을 통해서 노인의 성생활은 여전히 가능하며 필요하며, 더구나 유익하다는 분석에 도달했다. 따라서 노인들이 성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노인의 성에 대한 인지적 변화가 일어나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본고는 노인의 성에 대한 이런 노인복지학적 접근이 자유주의적 쾌락중심의 성이해에 경도되어 있다는 점을 밝히면서 비판했다. 노인이 노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노인도 성적 존재로서의 인간이라는 사실이 부정되어서는 안 된다. 노인의 성도 인정되고 긍정되어야 하며, 적합한 상황 속에서는 노인의 성적 표현이 다양하게 표출되고, 그 욕구가 충족되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노인의 성에 대한 인정과 긍정이 노인의 성을 과도하게 강조하는 것으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 노인을 좁은 의미의 성적 존재로 몰아붙여서는 안 된다. 오히려 노인의 전인적 복지를 훼손할 수도 있다. 성행위와 같은 직접적인 성적 표현만이 성적 존재로서의 노인(인간)의 자기실현을 가능하게 하지 않기 때문이다. 간접적이지만 다양하고 창조적인 성적 표현도 성적 존재로서의 노인(인간)의 자기실현을 더욱 풍성하게 해주어 통합적 인격으로서의 노인의 삶을 가능하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점이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주제어: 노인의 성, 노인복지, 노인의 성생활, 성윤리, 기독교 성윤리
